

연구보고서  
2021-12

# 고용형태, 일자리 변동, 기술변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

성재민

# KLI

연구보고서  
2021-12

## 고용형태, 일자리 변동, 기술변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

성재민



# 목 차

요 약 .....	i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구성 .....	3
제2장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 격차와 불평등에 대한 함의 .....	5
제1절 서 론 .....	5
제2절 분석자료와 추세 .....	7
제3절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 격차 분석 .....	13
1. 분석모형 .....	13
2. 2000년대 초중반 결과 .....	14
3. 2010년대 중후반 결과 .....	21
제4절 자영업의 불평등 함의 :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 .....	30
제5절 소 결 .....	36
제3장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업무 변화와 양극화에 대한 함의 .....	40
제1절 서 론 .....	40
제2절 종사상 지위별 업무 특성 차이 기초통계 .....	42

제3절 자영업자, 근로자의 소득 격차와 업무특성 차이 .....	48
제4절 자영업자의 일자리 양극화에서 역할 .....	53
1. 기초통계 .....	53
2. 중위 임금 수준별 일자리 변동 .....	56
제5절 자영업자의 소득 격차와 자영업 일자리 트렌드에서 자영업으로의 진입의 의미: 시론적 분석 .....	60
제6절 소 결 .....	64
제4장 결 론 .....	67
참고문헌 .....	72

## 표 목 차

<표 2- 1> 개인소득 분위별, 시기별, 자영업 여부별 전문대졸 이상 비중 .....	12
<표 2- 2> 2001~2006년 대상 분석: 25~64세 제한, 월임금 기준 .....	15
<표 2- 3> 2001~2006년 대상 분석: 25~64세 제한, 월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	15
<표 2- 4> 2001~2006년 대상 분석: 25~64세 제한, 월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	17
<표 2- 5> 2001~2006년 대상 분석: 25~64세 제한, 시간당 임금 기준 .....	18
<표 2- 6> 2001~2006년 대상 분석: 25~64세 제한, 시간당 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	19
<표 2- 7> 2001~2006년 대상 분석: 25~64세 제한, 시간당 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	20
<표 2- 8> 2014~2019년 대상 분석: 25~64세 제한, 월임금 기준 .....	22
<표 2- 9> 2014~2019년 대상 분석: 25~64세 제한, 월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	22
<표 2-10> 2014~2019년 대상 분석: 25~64세 제한, 월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	25
<표 2-11> 2014~2019년 대상 분석: 25~64세 제한, 시간당 임금 기준 .....	25
<표 2-12> 2014~2019년 대상 분석: 25~64세 제한, 시간당 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	26
<표 2-13> 2014~2019년 대상 분석: 25~64세 제한, 시간당 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	27
<표 2-14> 2001~2006년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25~64세, 월소득 기준 .....	31
<표 2-15> 2001~2006년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25~64세, 시간당	

소득 기준 .....	33
<표 2-16> 2014~2019년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25~64세, 월소득 기준 .....	34
<표 2-17> 2014~2019년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25~64세, 시간당 소득 기준 .....	35
<표 3- 1> 직업별 업무특성 평균 점수 .....	43
<표 3- 2> 직업별 ICT 활용 점수 .....	44
<표 3- 3> 업무 특성과 종사상 지위의 임금과의 관계: 근로환경조사 분석 결과 .....	50
<표 3- 4> 시기별 자영업자 고용 몫 변동과 근로자 고용 몫 변동 관계 .....	60
<표 3- 5> 업무 특성별, 종사상 지위별 변화에 따른 2001~2016년 간 소득 상승률 및 2016년 월평균 소득 .....	62

## 그림목차

[그림 2- 1] 고용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추이(좌축 고용주, 우축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8
[그림 2- 2] 지니계수 추이(개인 월평균 소득) .....	9
[그림 2- 3] 자영업자, 근로자 간 소득 격차(개인 월평균 소득 로그 포인트 격차) .....	10
[그림 2- 4] 개인소득 분위별 자영업자 비중 .....	11
[그림 2- 5]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 추이 .....	12
[그림 3- 1] 종사상 지위별 업무특성 점수(0-1점): 업무에서 ICT 활용 ...	45
[그림 3- 2] 종사상 지위별 업무특성 점수(0-1점): 동료 외 사람 상대 ...	46
[그림 3- 3] 종사상 지위별 업무특성 점수(0-1점): 반복적 업무 .....	46
[그림 3- 4] 종사상 지위별 업무특성 점수(0-1점): 지적, 추상적 업무 ...	47
[그림 3- 5] 종사상 지위별 업무특성 점수: 지적, 추상적 업무 (복잡하다)와 단순 업무(단조롭다) .....	47
[그림 3- 6] 업무특성과 임금 간 관계: 표준화 회귀계수 .....	49
[그림 3- 7]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업무 특성별 고용 몫 변화 .....	53
[그림 3- 8] 농림어업 제외하고 본 고용 몫 .....	54
[그림 3- 9] 임금근로, 자영업 구분해서 본 고용 몫 변화 .....	55
[그림 3-10] 근로자의 중위 임금 서열별 일자리 고용 몫 증감 .....	57
[그림 3-11] 자영업자의 중위 임금 서열별 일자리 고용 몫 증감 .....	58





## 요약

기존 연구는 기술변화나 일자리 변동이 노동시장 양극화,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할 때 임금근로자에 국한해 분석해 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기술적 변화는 플랫폼 노동의 증가같이 임금근로와 자영업 경계에서 일자리 증가를 유발하는 등 임금근로자에 국한된 연구의 한계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자리 변동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자영업으로 확대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높다 하겠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영업 일자리가 불평등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며, 자영업자의 일자리를 포함해서 볼 때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 불평등, 일자리 양극화 연구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해 향후 일자리 변동 전망과 불평등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기술변화는 고속련 친화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를 통해 고속련 일자리만 늘린다, 또는 반복숙련(routine skill) 특성을 갖는 중간 일자리를 줄이는 기술변화를 통해 고속련 및 비반복 숙련 특성을 가지는 저숙련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가설(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들이 존재한다. 기술변화가 빠른 부문은 고용이 줄고 대신 그렇지 않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증가하는 보몰(Baumol) 효과의 전달벨트 역할을 자영업이 하고 있다면, 임금근로 일자리 고용 뒀 변동을 완충하는 역할을 자영업 일자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자영업 진입을 흔히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창업으로 연결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이런 경향이 주된 자영업 창업 이유라면 이 역시 반복 업무 일자리 축소라는 장기 트렌드상 임금근로 반복 업무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비임

금 반복 업무 또는 이보다 더 못한 업무 일자리로 밀려들 것이기 때문에 역시 임금근로 일자리 고용 몫 변동을 완충하는 역할을 자영업 일자리가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영업은 고용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증가하는 영역에서 사업 기회도 많을 것이어서 축소되는 일자리 영역에서 늘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양상에서 자영업 일자리 역시 예외가 아니라면, 자영업은 일자리 양극화를 촉진하거나 최소한 그 경향에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자영업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실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담론 수준에서 자영업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의 제2의 인생기회로 보기도 하고, 청년 창업 담론에서 보이듯 일자리를 만들고 추가 고용을 창출하는 영역으로서의 가능성이 타진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볼 때 자영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장기 일자리 트렌드와 연결해 분석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부족해 왔던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 연구는 2000년대 초중반 어느 정도 분석이 시도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는 주제이다. 이 연구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주를 구별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 또한, 이 연구는 개인 미관측 특성에 대한 명시적 고려를 통해 근로자와의 격차에서 음 또는 양의 선택편의가 존재하는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 이 연구는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후반을 비교한다는 차이도 있다. 이 연구는 불평등 함의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 이 연구의 제목에서 보이듯 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에서는 자영업과 근로자 간 격차 및 불평등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였다. 고용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모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지니계수도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서 국제금융

위기 이래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의 지니계수가 월등히 커서 개인 소득 불평등에서 자영업이 불평등 강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 격차 자체는 2000년대 초반보다는 현재 완화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 분위를 나눠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가장 높은 10분위의 절반이 자영업자였으나 지금은 35%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분위에서 차지하는 몫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해 잠재 소득 능력이 나은 사람들이 좀 더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여부에 따라 자영업 소득 순위 계수 추정치가 크게 축소된다는 점을 밝혔다. 미관측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2000년대 초반에는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9% 내외의 월소득 우위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우위는 추정방식을 달리할 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아닌 고용주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2000년대 초중반 데이터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나, 임시·일용직보다는 소득 잠재력이 월등히 높은 사람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상용직 대비 소득 페널티의 대부분이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인 탓으로, 이 부분을 통제하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010년대 중후반으로 오면 월임금 기준으로는 상용직 대비 소득 페널티가 존재하는 점에선 과거와 동일한데, 소득잠재력을 통제해도 여전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소득에 페널티가 존재하게 바뀌었다는 점에선 과거와 다르다. 상용직 대비 페널티가 더 강화된 셈이다. 임시·일용직과도 월소득 기준으로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과거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졌다는 차이가 있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임시·일용직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소득 잠재력이 높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차이를 통제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 프리미엄은 과거와 달리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임시·일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자리

간 격차는 과거에 비해 좁혀졌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위별로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소득이 높은 고분위에서 고용주의 선택편의가 강화된 가운데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격차는 과거에 비해 다소 좁혀졌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최근으로 오면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전 기준으로 모든 분위에서 프리미엄이 아닌 페널티가 나타난 가운데, 특히 저분위에서 페널티가 크게 분석되었다.

분위별 회귀계수로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2010년대 중후반에도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도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다소 강화시켰다. 고용주가 주로 상위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특히 시간당 소득 기준으로 볼 경우 하위에서 끌어내리기 때문에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큰 차이로 할 수 있겠다.

제3장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업무 특성 및 업무 특성별 일자리 변동을 분석하고, 자영업자 일자리가 양극화에 대해 갖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공식 통계를 활용해 업무 특성에 따른 일자리 변동에서 자영업 일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기술변화에 따라 반복 업무 특성을 갖는 일자리가 축소되는 장기 트렌드가 존재하는 현재 상황에서 자영업 일자리가 완충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장기 트렌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런 장기 일자리 트렌드에서 왜 비임금 일자리로 사람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시론적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유로파운드(Eurofound)의 「유럽근로조건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조사하는 「근로환경조사」 분석을 통해 고용주가 다양한 항목에서 상용직과 비슷한 수준의 지적, 추상적 업무 특성을 보였으며, 사업을 하는 특성상 상용직과 달리 동료 외 사람 상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업무 특성 면에서 고용주나 상용직과는 많이 다르고 임시직과는 유

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반복, 단조로운 업무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 그 정도는 일용직이 가장 높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하는 특성상 문제해결능력만큼은 상용직보다도 높고 고용주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소득방정식에서 업무 특성을 통제하면 종사상 지위 회귀계수 절댓값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용직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소득이 낮는데, 업무 특성을 통제할 때 계수 절댓값이 1/3 수준으로 축소되어 상용직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페널티의 상당 부분이 업무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는 반대로 계수가 커졌다. 소득 면에서 불리한 업무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고용주 특성의 반영으로 풀이되었다.

자영업자 일자리는 흔히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일자리로 묘사되곤 한다. 이런 것이 현실이면 반복 업무가 축소되는 트렌드상 줄어드는 반복 업무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반복 업무를 하거나, 다른 더 소득 잠재력이 낮은 일자리로 갈 것을 상정해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인지적 일자리의 고용 몫 증가인 트렌드상 임금근로와 자영업 사이에는 고용 몫 변동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될 수 있다. 임금근로에서는 반복 업무가 줄고 인지 업무가 늘고 있으므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반복 업무나 이보다 못한 분야에서 창업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추정결과는 정의 부호로 나타났다. 임금근로 고용 몫이 증가하는 곳에서 자영업 고용 몫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자영업 일자리 역시 노동시장 일자리 변동의 장기 트렌드를 임금근로와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이는 일자리 양극화가 나타날 때 양극화의 완충지대가 아닌, 양극화를 함께하거나 촉진하는 부문으로 자영업 일자리가 역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이러한 일자리 변동에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자영업

일자리가 갖는 함의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반복 일자리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인지 업무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없다면 자영업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에서 유리하게 나타났다. 자영업 일자리에선 반복 업무이든 육체 업무이든 유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임금근로자는 반복 및 육체 업무를 가진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유사한 특성의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할 경우 소득 개선을 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사한 업무에 남을 거면 비임금 일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다. 임금근로 일자리의 수축되는 업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일자리 대비 상대적인 페널티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겠다. 정책적으로 보면 비임금에서 임금근로로의 이동 촉진이 평균의 관점에서 볼 때 꼭 바람직한 것이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결과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평균적으로 볼 때 상용직보다 못하고 임시·일용직보다는 다소 나은 상황에 있는 취업자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상용직과의 격차는 다소 커지고, 임시·일용직과의 격차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지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제도는 지난 몇 년간 조금씩 확대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 확대된 전국민고용보험으로 일부 자영업 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보호를 받고, 몇 년 전부터 근로장려금에 포괄되며, 최근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되었다. 이들의 경제적 지위로 보면 일상적인 경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의 가일층 확대, 실업급여에 그치는 보호 항목 다양화 같은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기존 연구는 기술변화나 일자리 변동이 노동시장 양극화,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할 때 임금근로자에 국한해 분석해 왔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기술적 변화는 플랫폼 노동의 증가같이 임금근로와 자영업 경계에서 일자리 증가를 유발하는 등 임금근로자에 국한된 연구의 한계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자리 변동상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연구를 자영업으로 확대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분석할 필요가 높다 하겠다.

이번 연구를 통해 자영업 일자리가 불평등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며, 자영업자의 일자리를 포함해서 볼 때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 불평등, 일자리 양극화 연구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해 향후 일자리 변동 전망과 불평등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Schneck(2020)의 연구는 자영업자가 노동소득 분포의 하위와 상위에 위치하면서 양극단의 소득 격차를 벌리는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노동소득 불평등 확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규명한 바 있다.

기술변화는 고속런 친화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를 통해 고속런 일자리만 늘린다, 또는 반복숙련(routine skill) 특성을 갖



는 중간 일자리를 줄이는 기술변화를 통해 고숙련 및 비반복 숙련 특성을 가지는 저숙련 일자리를 늘리는 일자리 양극화를 촉진한다는 가설(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들이 존재한다. 기술변화가 빠른 부문은 고용이 줄고 대신 그렇지 않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증가하는 보몰(Baumol) 효과의 전달벨트 역할을 자영업이 하고 있다면 임금근로 일자리 고용 몫 변동을 완충하는 역할을 자영업 일자리가 하고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자영업 진입을 흔히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창업으로 연결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이런 경향이 주된 자영업 창업 이유라면 이 역시 반복 업무 일자리 축소라는 장기 트렌드상 임금근로 반복 업무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비임금 반복 업무 또는 이보다 더 못한 업무 일자리로 밀려들 것이기 때문에 역시 임금근로 일자리 고용 몫 변동을 완충하는 역할을 자영업 일자리가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자영업은 고용원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증가하는 영역에서 사업 기회도 많을 것이어서 축소되는 일자리 영역에서 늘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경제 전체의 일자리가 증가하는 양상에서 자영업 일자리 역시 예외가 아니라면, 자영업은 일자리 양극화를 촉진하거나 최소한 그 경향에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Levine & Rubinstein (2017)의 연구는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와 구분해 어떤 숙련을 더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되는지, 임금근로자 대비 소득이 어떤지 등을 분석했는데, 법인 자영업자는 비루틴 업무에 특화하는 경향이 있고, 비법인 자영업자는 루틴 업무에 특화하는 특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다.

이와 같은 분석은 자영업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실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규명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담론 수준에서 자영업 일자리를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의 제2의 인생기회로 보기도 하고, 청년 창업 담론에서 보이듯 일자리를 만들고 추가 고용을 창출하는 영역으로서의 가능성이 타진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적으로 볼 때 자영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장기 일자리 트렌드와 연결해 분석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구성

제2장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부족해 왔던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 연구는 2000년대 초중반 어느 정도 분석이 시도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는 주제이다. 이 연구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주를 구별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 과거에는 1인 자영업자와 고용주가 일종의 연속선상에 있는 존재로 취급되었다면, 최근 연구나 정책 흐름에서는 1인 자영업자는 도급계약이나 플랫폼 노동을 통해 다른 기업에 부분적으로 종속되어 있거나, 제도 바깥의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따라서 보다 기업가적 마인드로 무장된 고용주와는 다른 존재로 본다.

또한, 이 연구는 개인 미관측 특성에 대한 명시적 고려를 통해 근로자와의 격차에서 음 또는 양의 선택편의가 존재하는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 이 연구는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후반을 비교한다는 차이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장기 추이로 보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과거에 비해 장기 수축하는 트렌드가 있었다. 이를 고려하면 과거의 자영업자와 현재의 자영업자가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이고, 격차의 구조도 달라졌을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불평등 함의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 이 연구의 제목에서 보이듯 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없는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는 것이 각 분위에서 자영업자 프리미엄 또는 페널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자영업이 노동시장 불평등에 미친 함의를 도출한다.

제3장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업무 특성 및 업무 특성별 일자리 변동을 분석하고, 자영업자 일자리가 양극화에 대해 갖는 함의를 도출한다. 자영업자의 일자리가 어떤 업무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 그동안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는 사실 기존 연구가 의존하는 직업사전이나 직업

정보시스템은 직업별로 업무 특성을 파악할 수는 있어도, 자영업자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구분해 파악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해 기존 연구의 공백을 메운다.

또한, 이 연구는 공식 통계를 활용해 업무 특성에 따른 일자리 변동에서 자영업 일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변화에 따라 반복 업무 특성을 갖는 일자리가 축소되는 장기 트렌드가 존재하는 현재 상황에서 자영업 일자리가 완충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장기 트렌드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이런 장기 일자리 트렌드에서 왜 비임금 일자리로 사람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시론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고용 비중은 장기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하다. 앞서 본 것처럼 자영업 일자리는 여전히 페널티보다는 프리미엄에 가까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반복 업무면서 임금근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복 업무 임금근로 일자리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다른 업무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비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자영업 일자리로 밀려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 일자리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볼 때 자영업에서 임금근로로의 이동 촉진 또한 하나의 과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영업에서 임금근로로 이동하는 것이 그럼 과연 평균적으로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제 2 장

###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 격차와 불평등에 대한 함의

#### 제1절 서론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많은 편이며, 농림 어업뿐 아니라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운수업, 부동산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주요 내수 서비스업 부문에서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많은 비표준 고용(nonstandard employment)에 대한 논의들은 플랫폼 노동 같은 자영업과 임금근로 경계에 있는 고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자영업, 특히 1인 자영업을 비표준 고용의 한 형태로 포함시키거나, 1인 자영업을 좀 더 세분해 경제적으로 다른 기업에 의존하는 자영업자를 따로 분류해 분석하고 있다. 1인 자영업자는 많은 나라에서 각종 제도 바깥의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거나 과거 같으면 근로자였을 것이나 비용회피나 관리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도급으로 외부화된 형태로 일한다. 자영업자 자신의 업무 자율성이나 타 기업에 대한 종속성의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1인 청소 프랜차이즈의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여부가 주마다 논란이 되기도 하며, 우버 기사 같이 각 국가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제3의 범주로 인정할 것인

지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근로자를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기업가로서 위험을 감수하는 특수한 존재로서 경제에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가 정신의 소유자라는 이념형(ideal type)에 근거한 각종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누가 자영업을 선택하는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여기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부족해 왔던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의 소득 격차를 분석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 연구는 2000년대 초중반 어느 정도 분석이 시도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거의 연구된 바 없는 주제이다. 이를테면, 류재우(2004)의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근로자와 비교를 통해 자영업 부문이 소득 수준, 소득 분산 면에서 직업으로서의 매력에 증대되어 왔고, 자영업 부문 취업자의 음의 선택성이 축소·소멸되어 왔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최강식 등(2005)의 연구는 OLS 및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한 연구를 통해 자영업주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높고, 소득 분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 간의 격차가 확대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고용주를 구별하여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 과거에는 1인 자영업자와 고용주가 일종의 연속선상에 있는 존재로 취급되었다면, 최근 연구나 정책 흐름에서는 1인 자영업자는 도급계약이나 플랫폼 노동을 통해 다른 기업에 부분적으로 종속되어 있거나, 제도 바깥의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따라서 보다 기업가적 마인드로 무장된 고용주와는 다른 존재로 본다.

또한, 이 연구는 개인 미관측 특성에 대한 명시적 고려를 통해 근로자와의 격차에서 음 또는 양의 선택편의가 존재하는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 자영업자 일자리는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 진입하는 일자리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일자리에서 일찍 밀려난 생산성이 다소 떨어지는 사람들이 진입하는 음의 선택편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1인 자영업자에게서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연구는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 후반을 비교한다는 차이도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장기 추이로 보면 취업자 중 자

영업자 비중은 과거에 비해 장기 수축하는 트렌드가 있었다. 2000년대 중 후반 이래 소매업, 음식점업, 여가 서비스업 등 여러 부문에서 대형화와 프랜차이즈화가 진행되면서 전통 자영업 부문의 수축이 진행되어 왔다. 자영업 부문은 새로운 업태가 등장할 때마다 일시적 확대를 경험하지만 곧 치열한 경쟁에 의해 수축을 거듭하는 특성도 있어 왔다. 과거에 비해 치열한 경쟁의 결과 자영업 부문이 수축해온 측면을 고려하면 과거의 자영업자와 현재의 자영업자가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영업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성에서 변화 가능성,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격차에서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불평등 함의도 분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 이 연구의 제목에서 보이듯 자영업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없는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는 것이 각 분위에서 자영업자 프리미엄 또는 페널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 자영업이 노동시장 불평등에 미친 함의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이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절에서는 자영업과 근로자를 비교해 기초통계를 정리한다. 제3절에서는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격차를 평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을 통해 분위별 격차 분석과 불평등에의 함의를 도출한다. 제5절에서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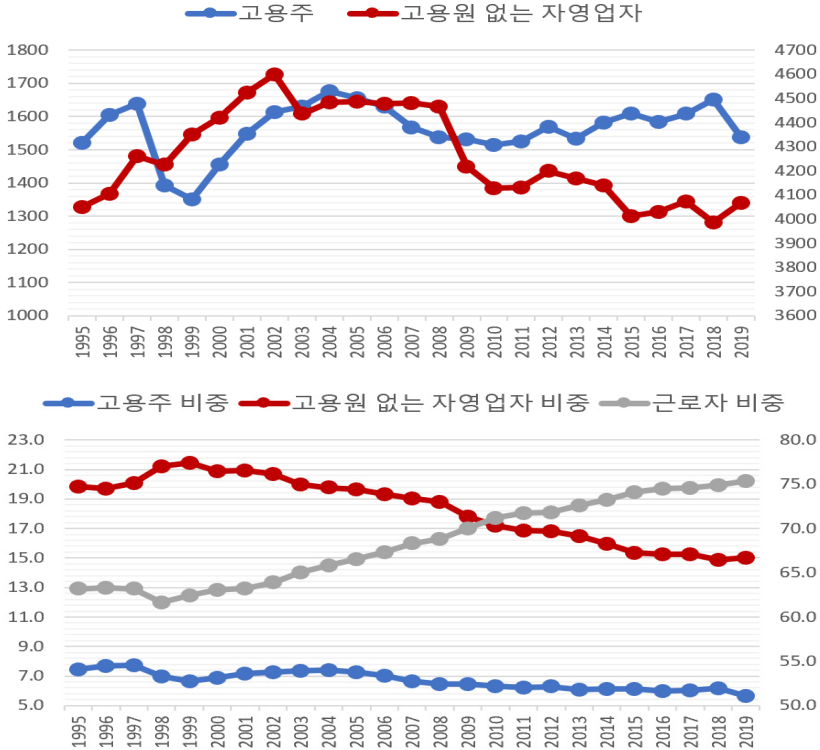
## 제2절 분석자료와 추세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비중은 장기로 보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주(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나눠 장기 추이를 보면, 고용주는 1998~99년 경제위기 시 크게 줄었으나 2004년 170만 명가량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10년경까지 150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8 고용형태, 일자리 변동, 기술변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

(그림 2-1) 고용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추이(좌축 고용주, 우축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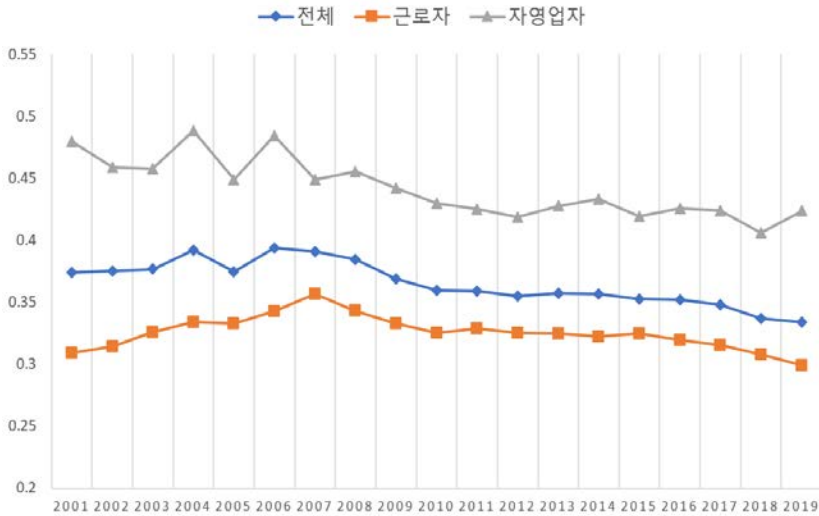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995년 이래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규모가 증가했으나, 그 이후 카드사태,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감소한 뒤 현재까지 완만하지만 꾸준히 숫자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중으로 보면 1998~99년 경제위기 이래 현재까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가 뚜렷하다. 고용주는 2000년대는 취업자의 7% 정도에 머물렀다면, 2010년대에는 취업자의 6% 내외 수준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임금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취업자의 최대 20%를 넘었으나 현재는 15% 수준으로 크게 축소되었고, 고용주도

(그림 2-2) 지니계수 추이(개인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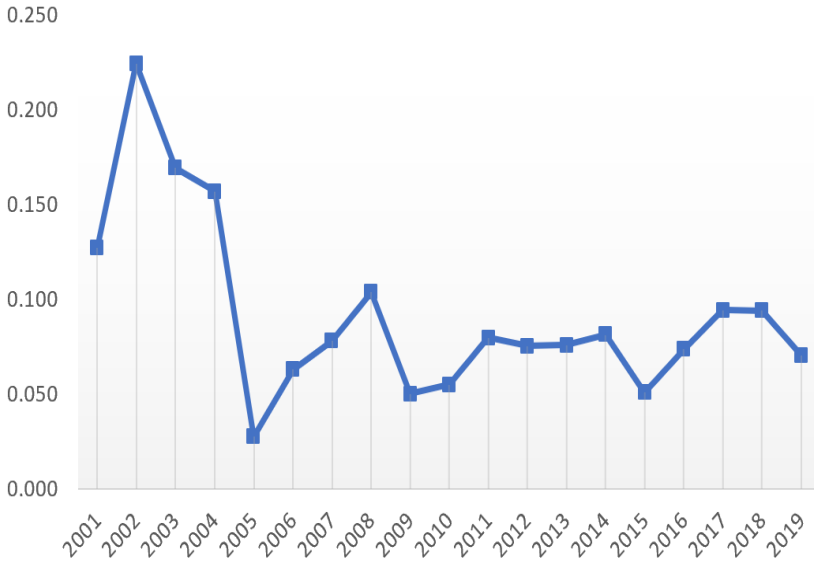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비중이 1~2%p가량 축소된 것이다(고용주 비중은 대략 1/7가량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비중 축소로 인해 과거의 자영업자가 현재의 자영업자와 다를 수 있다는 추론은 합리적일 수 있다. 비중이 줄었다는 것은 노동시장 내에서 자영업자 지위가 임금근로자만 못하게 꾸준히 변했기 때문에, 또는 치열한 경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계속 이들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는 과거의 자영업자와 현재의 자영업자 특성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분석할 것이다.

불평등 척도인 지니계수 추이를 보면,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의 지니계수가 크게 나타난다. 근로자 지니계수는 0.3~0.35 수준이지만, 자영업자 지니계수는 0.45 근방에서 움직인다. 근로자 지니계수는 자영업자 지니계수의 대략 70% 내외 수준인 셈이다. 이로 인해 전체 지니계수는 근로자 지니계수보다 항상 위에 있게 된다. 그래도 추세로 보면 지니계수의 증가는 근로자에서는 2007년 이래, 자영업자에서는 2004~2006년 이래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다양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국제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정체를 완화추세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앞서 자영업 취



[그림 2-3] 자영업자, 근로자 간 소득 격차(개인 월평균 소득 로그 포인트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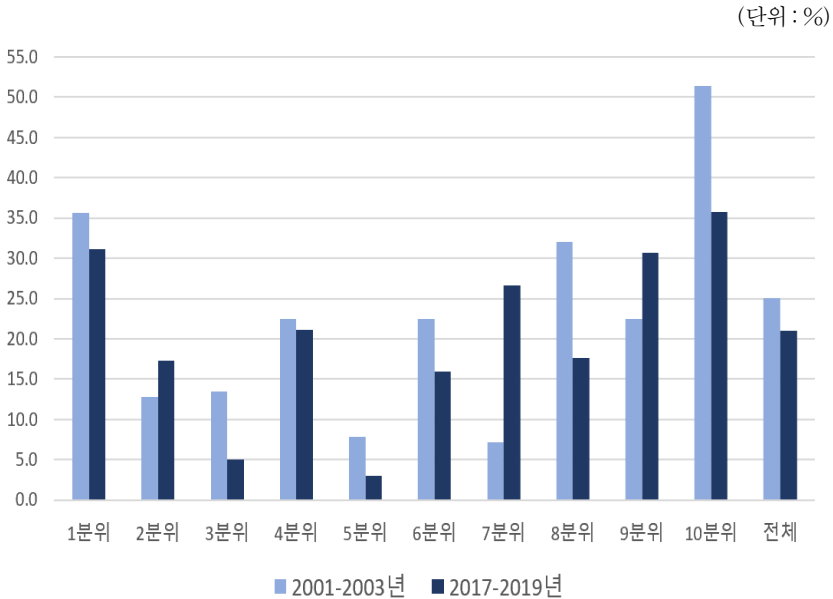


주: 개인 월평균 소득 기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업 비중이 줄고 근로자 비중이 커지는 장기 추세를 본 바 있는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양 집단의 지니계수에 변화가 없어도 구성변화로 인해 전체 지니계수는 감소하는, 불평등 완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소득 격차는 2000년대 초반에는 자영업자가 최대 20% 더 버는 수준까지 격차가 났으나, 2000년대 후반 이래 현재까지 10% 이하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개인 월평균 소득을 분위별로 나눠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자영업자는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분위 취업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가장 낮은 하위 1분위 취업자 중에서도 35%로 10분위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전체 취업자 소득 분위별 자영업자 비중은 U자 형태를 보이고 있어 근로자와 달리(근로자는 결국 역U자형 분포를 보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극화된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4) 개인소득 분위별 자영업자 비중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2010년대 후반으로 오면 자영업 비중 감소에 따라 전반적으로 자영업 비중이 대부분의 분위에서 줄어드는데, 특히 10분위에서 큰 하락을 보였다. 대신 9분위에서 비중이 증가했고, 8분위에서 비중이 큰 하락을 보인 반면 7분위에서 비중 상승을 보였다. 이로 보면 자영업자의 상대소득 수준이 다소 저하되면서 10분위로부터 비중이 줄어든 것이 이보다 아래 분위로 연쇄효과를 보인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다. 그림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2000년대 초반에도 자영업자는 5분위 이하에 42%, 2010년대 후반에도 42%가 있었다. 5분위에서 특정 소득 값에 응답이 몰리는 현상(hipping)이 발생하면서 5분위 이하가 2000년대 초반에는 53%, 2010년대 후반에는 50%로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는 5분위 이하 중저소득에서 좀 더 비중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분위 비중이 줄면서 2000년대 초반보다는 U자형 분포가 약화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양극화된 분포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근로자와 큰 차이라 할 수 있겠다.

〈표 2-1〉 개인소득 분위별, 시기별, 자영업 여부별 전문대졸 이상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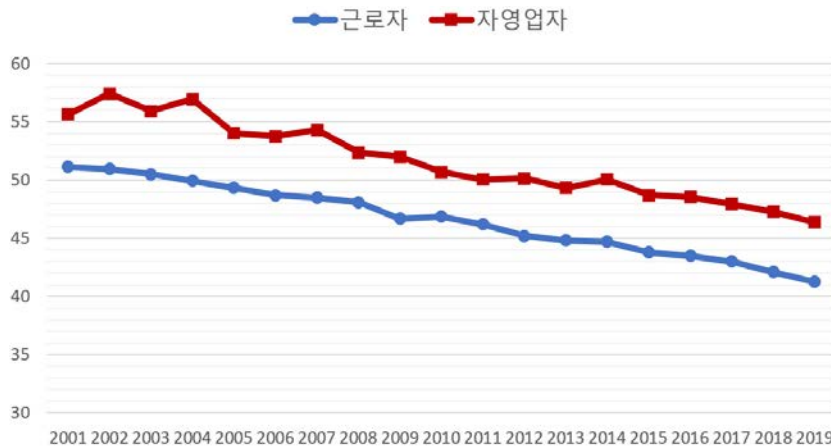
	2001~2003		2017~2019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1분위	11.2	5.1	26.0	22.5
2분위	16.3	10.0	31.9	27.2
3분위	23.5	13.0	41.3	20.1
4분위	28.3	18.7	51.9	37.0
5분위	36.6	9.4	58.1	24.0
6분위	38.4	16.1	63.3	43.0
7분위	45.8	20.3	65.4	41.1
8분위	49.3	26.3	75.8	46.2
9분위	66.9	25.0	79.5	46.2
10분위	73.0	42.0	80.3	57.8
전 체	36.0	21.6	56.2	39.0

주: 개인 월평균 소득 기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2-5)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주당평균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교육수준 차이도 전문대졸 이상 비중 차이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전 분위에서 자영업자보다 근로자의 교육수준이 높은

가운데, 근로자는 2010년대 후반에도 4분위 이상에서 전문대졸 이상 비중이 절반을 넘었지만, 자영업자는 9분위까지도 전문대졸 이상 비중이 절반에 못 미치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자영업이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취업자에게 기회의 창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음을 추측케 하는 통계라 할 수 있겠다.

주당평균근로시간 추이를 보면, 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근로시간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 자영업자는 55시간, 근로자는 50시간을 상회하던 주평균 근로시간은 최근 자영업자는 45시간, 근로자는 40시간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대략 10시간가량 감소한 모습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여전히 5시간 정도 더 일하는 격차를 유지하고 있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월소득 격차를 분석할 때는 자영업자의 상대적으로 더 긴 근로시간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하에서 격차를 분석할 때는 이 점을 고려해 월소득과 시간당 소득 모두를 분석할 것이다.

### 제3절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 격차 분석

#### 1. 분석모형

이 절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 격차를 분석한다. 2001~2006년(4차~9차 조사) 개인 자료, 2014~2019년(17차~22차 조사) 개인자료를 이용하여 시기별 자영업자-근로자 소득 격차에서 변화가 있는지도 분석하였다.

고령자는 근로자 중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비중이 높은 특성, 농업 비중이 높으나 빠르게 축소되어온 점 등을 고려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5~64세만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업을 한다는 특성상 자영업자의 미관측 특성이 근로자와 다를 수 있다. Levine & Rubinstein(2017)은 잠재능력이 높고, 청소년기에 불법적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영업 가능성이 높다고 한

바 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임금근로보다 자영업에서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뛰어들다는 점 등이 이미 자영업 선택 자체에서 반영되었기 때문에 선택편의도 고려할 수 있겠다.

이하 추정모형은 Levine & Rubinstein(2017, p.994)를 참조하였다.

$$E_{it} = \beta_0 + \beta_s S_{it} + \beta_x x_{it} + \epsilon_{it}$$

추정 방정식은 일반적인 민서 방정식으로,  $E_{it}$ 는 로그 월평균 소득, 또는 로그 시간당 소득이다. 자영업일 경우 비용 제한 소득, 임금근로자일 경우 임금이다. 모두 세후 소득이다.  $S_{it}$ 는 자영업 여부 변수이며,  $x_{it}$ 는 교육수준, 연령, 연령제곱, 성별, 연도 더미이다.

$$\epsilon_{it} = \theta_i + a_i(t) + v_{it}$$

잔차( $=\epsilon_{it}$ )는 개인 미관측 특성( $\theta_i$ )과 종속변수인 임금에 대한 개인 미관측 특성의 시간에 따른 영향력= $a_i(t)$ , 개인별 소득 충격= $v_{it}$ 의 함수라고 가정된다. 통상의 패널고정효과 모형과 달리,  $a_i(t)$ 를 통제하는 이유는 소득 성장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 자영업을 더 선택하기 때문에 자영업의 소득이 더 높을 수 있고, 이 선택편의 가능성이 근로자-자영업자 간 소득 격차에 얼마나 작용하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근로시간 조정에서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더 큰 결정력을 가질 것 이란 점을 고려해 월소득과 시간당 소득 모두 분석하였다.

## 2. 2000년대 초중반 결과

먼저 2001~2006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다. 월소득 기준으로 보면,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할 때(표 2-2의 3번 결과)와 비교해 그렇지 않을 때(표 2-2의 1, 2번 결과) 두 배 가까이 큰 추정치를 보이며, 이는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양의 선택편의, 즉 소득 잠재력이 더 높은 개인이 더 자영업자가 되는 현상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9%가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더 높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며, 자영업자가 소득 상승 잠재력도 보다 높을 가능성까지 통제된 상태에서도 8.5%가량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영업자가 더 높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관측 추세는 0.5%p 정도 계수 차이를 만들어 내므로 영향력이 크지는 않았다.

〈표 2-2〉 2001~2006년 대상 분석 : 25~64세 제한, 월임금 기준

	(1)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2) 선형회귀, 가중치 부여	(3)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4) 패널 고정효과, 개인 추세 통제
자영업자	0.172*** (0.0155)	0.177*** (0.0168)	0.0904*** (0.0213)	0.0848** (0.0413)
Observations	28,857	28,798	28,857	19,716
R-squared	0.346	0.356	0.135	0.217
Number of pid			8,033	

주 :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표 2-3〉 2001~2006년 대상 분석 : 25~64세 제한, 월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1)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2) 선형회귀, 가중치 부여	(3)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4) 패널 고정효과, 개인 추세 통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519*** (0.0212)	0.514*** (0.0231)	0.209*** (0.0268)	0.160*** (0.047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0194 (0.0170)	0.000232 (0.0184)	0.0454** (0.0217)	0.0542 (0.0414)
Observations	28,857	28,798	28,857	19,716
R-squared	0.379	0.388	0.141	0.219
Number of pid			8,033	

주 :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고용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분리한 모형으로 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 비해 52%가량 높은 임금을 버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더 번다는 통계적 근거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표 2-3의 1, 2번 결과). 이를 보면,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난 <표 2-2>의 결과는 고용주(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고 보면 고용주 회귀계수는 절반 이상 감소해 근로자보다 약 20% 정도 더 높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바뀌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약 45% 정도 더 버는 것으로 바뀐다(표 2-3의 3번 결과). 소득 잠재력이 높은 개인들이 고용주로 일하기 때문에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을 때 두 배 이상 큰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를 보인 것이라 해석 가능한 결과이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에 비교해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라는 일자리 특성으로 인해 소득 잠재력 수준이 같다면 소득이 높은 것으로 1, 2번과 3번 결과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겠다.

자영업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원래도 소득 성장이 가파른 사람들인지까지 통제 한 모형 기준으로 보면, 고용주는 근로자보다 약 16%가량 더 높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간의 추정치 감소가 나타나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추정치 자체는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1,2번보다는 이를 통제 한 3번과 유사한 크기를 보인다(표 2-3의 4번 결과).

근로자 집단은 비교적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과 명시적·묵시적으로 1년 미만 고용 계약된 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용원 여부별로 자영업자 특성이 구분되듯 종사상 지위별로 볼 때 근로자 집단 역시 균질하지 않으므로,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구분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추가 분석을 해 보았다.

상용직을 기준으로 고용원 여부별 자영업자를 비교해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추정치는 절대값이 감소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용직 근로자보다 8.3%가량 덜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추정치는 절반

이상 감소하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추정치는 양(+)의 값으로 바뀌나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하게 된다. 상용직에 비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소득이 낮지만, 이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상용직에 비해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일 뿐이며, 개인 특성을 통제하고 나면 상용직과 소득 차이가 없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용직 대비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일자리 특성이 상용직만큼 소득을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된다.

임시·일용직과 비교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무려 85% 더 높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약 22% 더 높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변경되어 상용직과 고용주 격차보다 약간 더 큰 수준으로 격차가 격감된다. 고용주와 격차의 상당 부분은 임시·일용직의 소득 잠재력이 낮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의 소득 격차도 27%로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데,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7.5%가량으로 상당히 격차가 축소된다. 임시·일용직은 상용직과 달리 소득 잠재력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보다 낮은 사람들이며, 이로 인해 이들 집단과 격차가 크게 추정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4〉 2001~2006년 대상 분석 : 25~64세 제한, 월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상용직 근로자와 비교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비교	
	(1)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2)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3)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4)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445*** (0.0212)	0.190*** (0.0279)	0.851*** (0.0252)	0.220*** (0.049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828*** (0.0171)	0.0349 (0.0233)	0.272*** (0.0209)	0.0751* (0.0447)
Observations	24,525	24,525	11,900	11,900
R-squared	0.369	0.155	0.389	0.041
Number of pid		7,076		3,944

주: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표 2-5〉 2001~2006년 대상 분석 : 25~64세 제한, 시간당 임금 기준

	(1)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2) 선형회귀, 가중치 부여	(3)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4) 패널 고정효과, 개인 추세 통제
자영업자	0.0945*** (0.0157)	0.105*** (0.0174)	0.0675*** (0.0224)	0.0735 (0.0454)
Observations	28,717	28,659	28,717	19,544
R-squared	0.305	0.312	0.108	0.205
Number of pid			8,024	

주: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시간당 소득 기준으로 보면, 월소득으로 비교할 때보다 절대값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격차는 자영업자의 긴 근로시간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만, 모형별 추정치 패턴 자체는 월소득일 때와 유사하게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을 때에 비해 통제할 때 격차가 감소했다. 개인 소득 추세까지 통제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변화되지만 계수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표 2-5의 (3)과 (4) 비교).

고용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분리한 모형으로 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 비해 39%가량 높은 임금을 버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5.5% 덜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소득일 때보다 고용주-근로자 격차는 줄었으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근로자는 격차가 없다가 시간당 소득으로 비교하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덜 버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두 가지 결과 모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더 긴 근로시간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월소득과 비교할 때와 유사한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월소득으로 비교할 때는 근로자에 비해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나나, 시간당 소득으로 비교하면 차이가

〈표 2-6〉 2001~2006년 대상 분석 : 25~64세 제한, 시간당 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1)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2) 선형회귀, 가중치 부여	(3)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4) 패널 고정효과, 개인 추세 통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392*** (0.0226)	0.398*** (0.0251)	0.199*** (0.0294)	0.164*** (0.0545)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552*** (0.0174)	-0.0481** (0.0194)	0.0171 (0.0228)	0.0360 (0.0456)
Observations	28,717	28,659	28,717	19,544
R-squared	0.328	0.334	0.113	0.207
Number of pid			8,024	

주 :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없는 것으로 변경된다. 개인 소득 추세를 통제해도 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시간당 소득 기준으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근로자에 비해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라는 일 자리 특성으로 인해 근로자와 차이 없는 임금을 벌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대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더 길게 일하기 때문에 월소득 기준으로는 근로자와 소득 잠재력이 유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며, 소득 잠재력을 통제하고 나면 역시 더 길게 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원래도 소득 성장이 가파른 사람들인지까지 통제한 모형 기준으로 보면, 고용주는 근로자보다 약 16%가량 더 높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 월소득으로 비교할 때의 결과와 흡사하게 나타났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추정치 자체는 소득추세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과 유사한 크기를 보였다.

상용직을 기준으로 고용원 여부별 자영업자를 비교해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추정치는 절대값이 감소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통

〈표 2-7〉 2001~2006년 대상 분석 : 25~64세 제한, 시간당 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상용직 근로자와 비교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비교	
	(1)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2)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3)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4)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368*** (0.0230)	0.200*** (0.0300)	0.516*** (0.0260)	0.167*** (0.053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697*** (0.0181)	0.0236 (0.0250)	0.0322 (0.0201)	-0.00852 (0.0468)
Observations	24,415	24,415	11,856	11,856
R-squared	0.323	0.120	0.295	0.028
Number of pid		7,066		3,941

주: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용직 근로자보다 7%가량 덜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과 비교하면 계수 절대값이 모두 작아져 이 경우에도 근로시간이 역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추정치는 크게 절반 가깝게 감소하여 <표 2-3>과 유사해지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추정치는 양(+)의 값으로 바뀌나 통계적으로는 무의미하게 된다. 근로시간 효과가 통제된 시간당 소득 기준으로 보더라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용직 대비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일자리 특성이 상용직만큼 소득을 끌어올린다는 의미가 된다.

임시·일용직과 비교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무려 51% 더 높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약 16% 더 높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변경되어 상용직과 고용주 격차보다 훨씬 큰 수준으로 격차가 격감된다. 고용주와 격차의 상당 부분은 임시·일용직의 소득 잠재력이 낮은 데에서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월소득과 특별히 다른 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간 소득 격차이다.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아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의 소득 격차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며,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계수는 음(-)의 값으로 변경되나 역시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간 소득 격차는 상당 부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근로시간이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개인의 생산성을 더 잘 보여주는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은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겠다.

이상의 종사상 지위 간 비교 결과를 정리하면, 2000년대 초중반에는 자영업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소득 잠재력도 높고, 일자리에서 올리는 소득 수준도 소득 잠재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높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소득 잠재력이 낮으나, 임시·일용직과는 유사한 사람들이며, 소득 잠재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일자리 특성 때문에 상용직 근로자와의 소득차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 잠재력 자체는 임시·일용직과 유사하나, 긴 근로시간으로 이들은 임시·일용직보다 높은 월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 3. 2010년대 중후반 결과

다음으로 2014~2019년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이다. 2018년부터 표본이 확대되었는데, 이 표본은 제외한 결과이다. 월소득 기준으로 보면,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할 때(표 2-8의 3번 결과)와 비교해 그렇지 않을 때(표 2-8의 1, 2번 결과) 완전히 다른 추정결과를 보인다.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을 때는 13~14%가량 근로자보다 자영업자가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나나,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계수는 1/6~1/7 정도로 축소(약 2%)되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게 바뀐다.

<표 2-8> 2014~2019년 대상 분석 : 25~64세 제한, 월임금 기준

	(1)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2) 선형회귀, 가중치 부여	(3)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4) 패널 고정효과, 개인 추세 통제
자영업자	0.136*** (0.0165)	0.147*** (0.0205)	0.0196 (0.0262)	0.0145 (0.0409)
Observations	36,465	36,465	36,465	27,066
R-squared	0.312	0.291	0.075	0.200
Number of pid			8,536	

주: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표 2-9> 2014~2019년 대상 분석 : 25~64세 제한, 월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1)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2) 선형회귀, 가중치 부여	(3)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4) 패널 고정효과, 개인 추세 통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518*** (0.0215)	0.528*** (0.0269)	0.150*** (0.0279)	0.0957** (0.041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646*** (0.0181)	-0.0675*** (0.0225)	-0.0332 (0.0268)	-0.0175 (0.0417)
Observations	36,465	36,465	36,465	27,066
R-squared	0.353	0.333	0.083	0.203
Number of pid			8,536	

주: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2000년대 초중반에는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기 전후 17%→9% 정도로 절반에 못 미치게 축소되고 미관측 특성 통제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된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보인다. 2000년대 초중반이나 지금이나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소득 잠재력이 더 높지만(물론, 계수값을 비교해 보면 그 차이는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 2010년대 중후반에 좁혀졌다), 그 차이를 통제하고 나서도 2000년대 초중반에는 자영업자 일자리에서의 소득이 더 높았으나, 2010년대

중후반에는 더 이상 자영업자 일자리 소득이 높다고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즉, 2010년대 중후반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소득이 높은 이유는 원래 소득 잠재력이 높은 사람들이 자영업자를 하기 때문이지, 자영업자 일자리 자체는 근로자 일자리보다 더 높은 소득을 실현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또한, 2000년대 초중반에는 같은 개인이라면 자영업자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근로자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높은 소득을 실현해주고 있었으나, 그런 수익이 사라졌다는 의미이다.

고용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분리한 모형으로 보면, 2000년대 초중반과 유사하게 고용주는 근로자에 비해 52%가량 높은 임금을 버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00년대 초중반과 달리 근로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약 6.5%가량 덜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9의 1번 결과).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고 보면 고용주 회귀계수는 2000년대 초중반보다 더 많이 축소되어 근로자보다 약 15% 정도 더 높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바뀌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3%가량 덜 버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9의 3번 결과). 개인의 소득 잠재력을 통제하고 나면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 2010년대 중후반에 고용주의 근로자 대비 소득 수익이 감소했다는 의미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에 비교해 소득이 낮지만, 이는 이들이 소득 잠재력 면에서 근로자만 못하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소득 잠재력이 같다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일하는 일자리 특성 덕분에 소득차이가 없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또한, 2000년대 초중반에는 개인 특성이 같다면 일자리 특성 덕분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근로자 소득보다 높았지만, 이제는 그런 소득 프리미엄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자영업자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원래도 소득 성장이 가파른 사람들인지까지 통제한 모형 기준으로 보면, 고용주는 근로자보다 약 9%가량 더 높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 추정치 감소가 나타나며, 이는 2000년대 초중반보다 더 감소한 것이다. 2000년대 초중반보다 현재 고용주의 높은 소득은 개인의 특성, 개인의 잠재소득 성장률 차이에 기인하는 요인이 더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패턴은 상용직 근로자와의 비교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개인 특성을 통제하기 전에는 2000년대 초중반이나 2010년대 중후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상용직 근로자보다 40% 넘는 소득 프리미엄을 얻고 있으나, 개인 특성을 통제하고 나면 실제 일자리 특성으로 인한 프리미엄은 2000년대 초중반에는 절반가량, 2010년대 중후반에는 거의 1/4가량으로 축소되어 최근의 프리미엄이 과거보다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 일자리가 갖는 우위는 과거보다 현재 더 원래 소득 잠재력이 높은 사람이 고용주 일자리를 택하기 때문으로, 이를 통제하고 나면 고용주 일자리 특성이 주는 소득 프리미엄은 과거보다 못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의 격차도 확대되었다. 과거에도 상용직 근로자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었지만, 소득 잠재력 격차는 과거보다 현재 훨씬 크게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개인 특성을 통제하기 전 격차는 과거 -8% 수준에서 현재 -18% 수준까지 확대되었고, 그나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일자리 특성 때문에 개인 소득 잠재력을 통제하고 나면 -6% 수준까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임시·일용직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격차는 2000년대 초중반과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의 격차는 역시 2000년대 초중반과 달랐다. 개인특성을 통제하기 전 격차는 과거 27%, 현재 25%로 유사하나, 개인특성을 통제한 후에는 과거 통계적으로 유의한 7.5%에서 현재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3.7%로 상당히 달라졌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임시·일용직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 비해 더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고, 개인 특성이 같다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자리이기 때문에 벌 수 있던 프리미엄도 과거와 달리 사라졌다는 의미가 된다.

시간당 소득 기준으로 보면, 2000년대 초중반처럼 월소득으로 비교할 때보다 절대값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월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은 자영업자가 근로자 대비 상대적으로 긴 근로시간 때문임을 보여 준다. 그런데,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차이는 계수값으로는 음(-)의 차이로 바뀌어 근로자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고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6.7%가량의 차이가 있었던 것과는 큰 차이이다.

〈표 2-10〉 2014~2019년 대상 분석 : 25~64세 제한, 월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상용직 근로자와 비교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비교	
	(1)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2)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3)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4)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419*** (0.0213)	0.110*** (0.0302)	0.884*** (0.0246)	0.200*** (0.048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182*** (0.0182)	-0.0635** (0.0302)	0.250*** (0.0211)	0.0378 (0.0465)
Observations	30,025	30,025	14,336	14,336
R-squared	0.340	0.087	0.403	0.041
Number of pid		7,226		4,018

주: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표 2-11〉 2014~2019년 대상 분석 : 25~64세 제한, 시간당 임금 기준

	(1)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2) 선형회귀, 가중치 부여	(3)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4) 패널 고정효과, 개인 추세 통제
자영업자	0.0461*** (0.0157)	0.0585*** (0.0196)	-0.0347 (0.0257)	-0.0283 (0.0404)
Observations	36,455	36,455	36,455	27,050
R-squared	0.292	0.275	0.101	0.172
Number of pid			8,536	

주: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표 2-12〉 2014~2019년 대상 분석 : 25~64세 제한, 시간당 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1)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2) 선형회귀, 가중치 부여	(3)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4) 패널 고정효과, 개인 추세 통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364*** (0.0229)	0.376*** (0.0288)	0.0678** (0.0290)	0.0389 (0.0423)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120*** (0.0170)	-0.120*** (0.0212)	-0.0764*** (0.0263)	-0.0548 (0.0412)
Observations	36,455	36,455	36,455	27,050
R-squared	0.324	0.307	0.105	0.174
Number of pid			8,536	

주: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고용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분리하면,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시간당 임금으로 볼 경우 2000년대 초중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차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 특성을 통제하고 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6.7%가량 높은 프리미엄을 얻는 것으로 나타나 2000년대 초중반의 19%보다 크게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개인 추세가 지 통제하면 계수값은 3.8% 차이로 축소되고 통계적 유의도도 사라졌다. 과거에 비해 현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프리미엄은 일자리 프리미엄이 아니며, 개인 특성의 결과일 뿐이라는 의미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근로자 차이도 더 확대되었다.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전에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12% 낮은 소득을 벌었으며, 통제 후에는 7.6% 낮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자리는 근로자 일자리에 비해 프리미엄이 아닌 페널티가 있으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근로자 대비 낮은 소득 잠재력 특성으로 인해 더 낮은 소득을 실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이와 같은 격차는 일자리 페널티 면에서 과거보다 더 확대된 것이다(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전후 2000년대 초중반에는 -0.05 → 0.017로 줄어, 개인 특성 기여를 보여

주는 줄어든 폭 자체는 과거나 현재나 크게 다르진 않으나 일자리 패널터를 보여주는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후 결과는 과거 0.017, 현재는 -0.0764 이기 때문이다).

상용직을 기준으로 고용원 여부별 자영업자를 비교해 보면, 상용직 기준으로는 2010년대 중후반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난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일자리 특성이 주는 프리미엄이라 볼 수 있는 (2)번 모형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해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고용주의 개인 소득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높은 소득이 실현된 것이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고용주 일자리 프리미엄이 20%가 넘었다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큰 변화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앞서 근로자 전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임시·일용직의 경우에도 개인 특성 통제 후 고용주 일자리 프리미엄은 8% 수준으로 과거의 16%보다 크게 축소되었다. 하지만 고용주 개인 소득 잠재력이 높기 때문에 실제 소득은 높았는데, 그 수준은 과거 51%에서 현재 57%로 오히려 더 증가했다. 즉, 과거에 비해 현재 고용주와 임

〈표 2-13〉 2014~2019년 대상 분석 : 25~64세 제한, 시간당 임금 기준, 고용원 여부별 분리

	상용직 근로자와 비교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비교	
	(1)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2)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3) 선형회귀, 가중치 미부여	(4) 패널 고정효과, 가중치 미부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0.310*** (0.0230)	0.0539 (0.0330)	0.570*** (0.0251)	0.0806* (0.043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178*** (0.0175)	-0.0861*** (0.0312)	0.0552*** (0.0192)	-0.0537 (0.0412)
Observations	30,015	30,015	14,335	14,335
R-squared	0.312	0.101	0.306	0.055
Number of pid		7,226		4,018

주: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시·일용직 근로자 간 개인 소득 잠재력 격차는 더 커졌으며, 반대로 일자리 프리미엄은 줄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의 차이는 본질적 변화는 없는데, 다만 과거에는 개인 특성 통제 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차이가 있다. 과거에는 임시·일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간 개인 소득 잠재력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면, 지금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선택한 개인의 소득 잠재력이 임시·일용직보다 약간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잠재 소득 능력이 나은 사람들이 좀 더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여부에 따라 자영업 소득 순위 계수 추정치가 크게 축소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에는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9% 내외의 월소득 우위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우위는 추정방식을 달리할 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아닌 고용주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통계적 유의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근로자에 비해 소득 우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추정 모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도, 유의하지 않기도 하였다. 소득 성장 추세가 좀 더 가파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자영업자가 되기 때문에 소득 우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도 고용주에 한해 다소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효과는 계수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

최근인 2014~2019년으로 오면,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소득 순위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에 고용주 소득 순위가 훨씬 크게 감소하며, 개인의 미관측된 소득 성장추세까지 통제해도 2000년대 초반에 비해 더 큰 추정치 하락이 나타난다. 이는 과거에 비해 현재 고용주가 되는 사람이 좀 더 소득이 높을 미관측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선택편의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영업자 소득 순위의 상당 부분은 이들이 근로자보다 장시간 일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도 확인되었다. 최근 데이터에서 근로자 대비 소득 열위가 나타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시간당 소득으로 볼 때보다 월소득으로 볼 때 소득 열위가 더

작게 나타났다.

2000년대 초중반 데이터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나, 임시·일용직보다는 소득 잠재력이 월등히 높은 사람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상용직 대비 소득 페널티의 대부분이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인 탓으로, 이 부분을 통제하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소득 잠재력을 통제해도 임시·일용직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소득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용직과 비교할 때 월임금으로 볼 때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지만, 임시·일용직 대비 소득 잠재력이 높았던 결과는 사라진다. 임시·일용직 대비 더 길게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성향 때문에 소득 잠재력이 높은 것처럼 보였던 셈이다. 이 때문에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해도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보면 임시·일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대 중후반으로 오면 월임금 기준으로는 상용직 대비 소득 페널티가 존재하는 점에선 과거와 동일한데, 소득 잠재력을 통제해도 여전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소득에 페널티가 존재하게 바뀌었다는 점에선 과거와 다르다. 임시·일용직과도 월소득 기준으로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과거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졌다는 차이가 있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임시·일용직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소득 잠재력이 높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차이를 통제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 프리미엄은 과거와 달리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시간당으로 봐도 상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소득 격차는 월소득으로 볼 때와 본질적 차이가 없으며, 임시직도 그러하다.

## 제4절 자영업의 불평등 함의 :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한 결과

다음으로, 소득분포에 대한 자영업의 영향을 보기 위해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모형은 조건부 분위회귀분석과 달리 소득의 무조건 분포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만큼 자영업자의 개인 소득 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데에 적합하다.

이들테면, 선형회귀모형의 추정계수는  $X$ 가 변화할 때  $Y$ 의 무조건부 평균(unconditional mean)의 변화분으로 해석가능하다(이하 식 1~5에 대한 설명은 Borah & Basu(2013)의 pp.1055~1056를 요약 정리한 것임).

$F_Y(y) = \Pr(Y \leq y)$ 는  $Y$ 의 무조건부 분포 함수이고 해석을 간단히 하기 위해  $X$ 가 이항변수라고 간주하면  $X$ 의 각 값에 대해  $Y = X \cdot Y_1 + (1 - X) \cdot Y_0$ 가 된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식 (1), (2)에 의해 선형회귀 모형 추정치는  $X$ 에 대한  $Y$ 의 조건부 기대 변화이자  $X$ 의 무조건부 분포(unconditional distribution) 변화의  $Y$ 의 무조건부 분포 평균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의미를 갖게 된다.

$$E(Y) = p(X) \cdot E(Y|X=1) + (1-p(X)) \cdot E(Y|X=0) \quad (1)$$

$$dE(Y)/dp(X) = E(Y|X=1) - E(Y|X=0) = \beta_{OLS} \quad (2)$$

이는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에서도 유사하게 성립한다.  $Y$ 의 무조건부 분포에서  $\tau$ 번째 분위기를  $q_Y(\tau)$ 라 하면  $\tau = F_Y(q_Y(\tau))$ 인데, 그러면 식 (3)부터 (5)에 의해  $X$ 의 무조건부 분포 변화의  $Y$ 의 무조건부 분포  $\tau$ 분위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게 된다.

$$F_Y(q_Y(\tau)) = \Pr(X=1) \cdot F_{Y|X=1}(q_Y(\tau)) + \Pr(X=0) \cdot F_{Y|X=0}(q_Y(\tau)) \quad (3)$$

$$dF_Y(q_Y(\tau))/dp(X) = (\partial F_Y(q_r)/\partial q_Y(\tau)) \cdot (dq_Y(\tau)/dp(X)) \quad (4)$$

$$dq_Y(\tau)/dp(X) = [F_{Y|X=1}(q_Y(\tau)) - F_{Y|X=0}(q_Y(\tau))] / f_Y(q_Y(\tau)) \quad (5)$$

여기서는 Firpo, Fortin, & Lemieux(2009)의 방법을 이용해 추정하는데, 실제 모형을 추정할 때는 개인 미관측 특성도 통제하여 각 소득 분위에서 차이를 확인한다.

결과를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분위가 높을수록 근로자 대비 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전 분위에서 이러한 격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할 경우 전반적으로 소득차 자체는 감소하지만, 상위분위로 갈수록 차이가 커지는 패턴 자체는 유지되었다. 또한, 소득이 낮은 1, 2분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5분위 이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2-14〉 2001~2006년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 25~64세, 월소득 기준

		선형회귀		패널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분위	0.183***	(0.0161)	-0.0372	(0.0507)
	2분위	0.268***	(0.0123)	0.0197	(0.0376)
	3분위	0.244***	(0.00884)	0.0507**	(0.0240)
	4분위	0.381***	(0.0162)	0.0607	(0.0462)
	5분위	0.392***	(0.0116)	0.177***	(0.0313)
	6분위	0.439***	(0.0149)	0.222***	(0.0401)
	7분위	0.522***	(0.0138)	0.287***	(0.0337)
	8분위	0.753***	(0.0255)	0.445***	(0.0567)
	9분위	0.874***	(0.0276)	0.467***	(0.054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분위	-0.225***	(0.0225)	-0.143***	(0.0550)
	2분위	0.00610	(0.0147)	-0.0743**	(0.0364)
	3분위	0.0702***	(0.00939)	0.0198	(0.0235)
	4분위	0.00655	(0.0148)	-0.0521	(0.0406)
	5분위	0.104***	(0.0102)	0.0830***	(0.0261)
	6분위	0.0452***	(0.0116)	0.0931***	(0.0316)
	7분위	0.126***	(0.0104)	0.169***	(0.0259)
	8분위	0.0916***	(0.0153)	0.208***	(0.0399)
	9분위	0.109***	(0.0144)	0.204***	(0.0349)
표본수		28,857		28,798	

주 :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5분위 이상에서 분위가 높다고 격차가 커지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5분위 이상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근로자보다 10% 내외 정도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분위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근로자보다 22% 가량 덜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결과가 달라진다. 분위가 높을수록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익이 높아지고, 저분위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프리미엄이 아닌 페널티가 관찰되었다. 1분위의 경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자리 자체의 페널티도 있는데,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선택하기 때문에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더 페널티가 큰 것처럼 보이게 나타났다. 반대로 고소득 분위에서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자리 자체의 프리미엄이 워낙 커서(20.4% 더 높음)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자리 프리미엄이 10.9%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으로 보아도 월소득일 때의 주요 특징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서 유지된다. 다만, 7분위 이상에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더 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소득으로 볼 경우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개인 미관측 특성 미통제 결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소득이 높은 분위에서 더 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당 소득으로 비교하면 계수 크기도 작아지고, 월소득과 달리 5-7분위에서의 통계적 유의도도 사라진다.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할 때 소득이 높은 분위에서 계수값이 커지는 현상도 월소득과 유사해 시간당 소득으로 보더라도 일자리 프리미엄이 상당함에도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자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격차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월소득으로 보나 시간당 소득으로 보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저분위보다 고분위일수록 상당한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미관측 특성을 통제해도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월소득 기준으로 보면, 중상위 격차(9분위대-5분위 격차)를 증가시킨다고 보긴 어렵지만 1분위 소득은 감소, 5분위 소득은 증가하기 때문에 중하위 격차는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결과는 상당 부분 개인 특성의 결과로, 일자리 자체의 프리미엄만 보면 5분위에서 9분위로 갈수록 증가해 중상위 격차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간당 소득으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자리는 저분위에서는 페널티, 고분위에서는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므로 불평등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쪽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 비해서는 작게 나타났다.

〈표 2-15〉 2001~2006년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25~64세, 시간당 소득 기준

		선형회귀		패널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분위	0.137***	(0.0157)	-0.0336	(0.0511)
	2분위	0.189***	(0.0136)	0.00971	(0.0405)
	3분위	0.237***	(0.0144)	0.0291	(0.0429)
	4분위	0.293***	(0.0148)	0.0851*	(0.0434)
	5분위	0.354***	(0.0160)	0.197***	(0.0459)
	6분위	0.373***	(0.0170)	0.247***	(0.0453)
	7분위	0.431***	(0.0199)	0.305***	(0.0488)
	8분위	0.486***	(0.0248)	0.327***	(0.0559)
	9분위	0.674***	(0.0371)	0.474***	(0.069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분위	-0.226***	(0.0199)	-0.182***	(0.0519)
	2분위	-0.0753***	(0.0143)	-0.0696*	(0.0376)
	3분위	-0.0195	(0.0135)	-0.0260	(0.0378)
	4분위	-0.00865	(0.0131)	0.00117	(0.0369)
	5분위	0.00956	(0.0131)	0.0502	(0.0363)
	6분위	0.0202	(0.0127)	0.105***	(0.0342)
	7분위	0.0183	(0.0135)	0.0961***	(0.0368)
	8분위	0.0361**	(0.0152)	0.145***	(0.0410)
	9분위	0.0347*	(0.0189)	0.186***	(0.0483)
표본수		28,717		28,659	

주: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다음으로, 2010년대 중후반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월소득 기준으로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2000년대 초중반과 본질적 차이는 없는 가운데,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고용주 일자리 프리미엄은 특히 소득이 높은 쪽에서 다소 줄어든 가운데, 개인 특성 기여가 포함된 선형회귀에서의 프리미엄은 8, 9분위에서 다소 커져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고용주 일자리 자체의 프리미엄은 다소 줄었으나, 소득 잠재력이 높은 사람이 고용주 일자리를 선택할 경향은 더 커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표 2-16〉 2014~2019년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 25~64세, 월소득 기준

		선형회귀		패널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분위	0.152***	(0.00894)	0.00161	(0.0421)
	2분위	0.199***	(0.00929)	-0.0187	(0.0323)
	3분위	0.309***	(0.0109)	0.105**	(0.0410)
	4분위	0.271***	(0.00821)	0.0968***	(0.0270)
	5분위	0.411***	(0.0114)	0.164***	(0.0340)
	6분위	0.473***	(0.0120)	0.240***	(0.0362)
	7분위	0.419***	(0.0133)	0.201***	(0.0342)
	8분위	0.773***	(0.0203)	0.348***	(0.0504)
	9분위	0.964***	(0.0278)	0.376***	(0.060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분위	-0.0939***	(0.0157)	-0.0921**	(0.0449)
	2분위	-0.0300***	(0.0111)	-0.0866**	(0.0338)
	3분위	-0.0190	(0.0116)	-0.0210	(0.0400)
	4분위	0.0327***	(0.00844)	0.0213	(0.0258)
	5분위	0.0152	(0.0103)	0.0494	(0.0313)
	6분위	0.0227**	(0.00996)	0.0858***	(0.0325)
	7분위	-0.0365***	(0.00912)	0.0452*	(0.0273)
	8분위	0.0704***	(0.0127)	0.155***	(0.0372)
	9분위	0.0677***	(0.0138)	0.119***	(0.0410)
표본수		36,465		36,465	

주 :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표 2-17〉 2014~2019년 무조건부 분위회귀분석 : 25~64세, 시간당 소득 기준

		선형회귀		패널 고정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분위	0.100***	(0.0142)	-0.142**	(0.0609)
	2분위	0.159***	(0.0114)	-0.0597	(0.0420)
	3분위	0.189***	(0.0111)	0.0163	(0.0384)
	4분위	0.233***	(0.0111)	0.0815**	(0.0369)
	5분위	0.256***	(0.0123)	0.104***	(0.0369)
	6분위	0.301***	(0.0134)	0.117***	(0.0372)
	7분위	0.383***	(0.0156)	0.126***	(0.0405)
	8분위	0.499***	(0.0210)	0.204***	(0.0501)
	9분위	0.761***	(0.0328)	0.340***	(0.072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분위	-0.303***	(0.0179)	-0.316***	(0.0607)
	2분위	-0.124***	(0.0125)	-0.149***	(0.0423)
	3분위	-0.0725***	(0.0107)	-0.0756**	(0.0376)
	4분위	-0.0481***	(0.00982)	-0.0288	(0.0341)
	5분위	-0.0524***	(0.0100)	0.00125	(0.0338)
	6분위	-0.0291***	(0.0102)	0.0294	(0.0329)
	7분위	-0.0334***	(0.0106)	0.0282	(0.0323)
	8분위	-0.0499***	(0.0123)	0.0444	(0.0392)
	9분위	-0.0188	(0.0157)	0.100*	(0.0517)
표본수		36,455		36,455	

주 :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 p<0.01, \*\* p<0.05, \* p<0.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원자료, 저자 분석.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개인 특성 통제 여부와 관계없이 프리미엄이나 페널티가 모두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초 중반 월소득에서 나타난 패턴 자체는 본질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소득으로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월소득에서처럼 개인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프리미엄은 2000년대 초중반보다 줄었지만, 개인 특성이 설명하는 바는 고소득 분위에서 더 커져 소득 잠재력이 높은 사람들이 특히 고소득 고용주를 선택하는 경향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큰 차이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서 나타났다.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전 기준으로 모든 분위에서 프리미엄이 아닌 페널티가 나타난 가운데, 특히 저분위에서 페널티가 크게 분석되었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3-9분위에서는 페널티가 관찰되지 않았고, 특히 8, 9분위에서는 프리미엄이 나타났다. 개인 특성을 통제하고 나서도 2000년대 초중반에는 6-9분위에서 프리미엄이 관찰되었고, 분위가 높을수록 프리미엄도 커졌지만, 2010년대 중후반에는 9분위를 제외하고는 프리미엄이 사라졌다. 다만, 중상위 분위에서 2000년대 초중반 일자리 프리미엄 덕에 소득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전 8, 9분위에서 프리미엄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9분위를 제외하고는 일자리 프리미엄도 없고, 여전히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상위 분위에서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전 일자리 페널티가 관측되는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2010년대 중후반에도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도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다소 강화시켰다. 고용주가 주로 상위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불평등을 증가시키다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특히 시간당 소득 기준으로 볼 경우 하위에서 끌어내리기 때문에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5절 소 결

지금까지 자영업과 근로자 간 격차 및 불평등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였다. 고용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모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지니계수도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서 국제금융위기 이래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의 지니계수가 월등히 커서 개인 소득 불평등에서 자영업이 불평등 강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 격차 자체는 2000년대 초반보다는 현재 완

화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 분위를 나눠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가장 높은 10분위의 절반이 자영업자였으나 지금은 35%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분위에서 차지하는 몫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으로 보면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전문대졸 이상자 비중을 보이며, 이는 특히 고분위에서도 진실인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초반보다는 자영업자의 고분위에서의 고학력화가 진전되었지만, 여전히 9분위까지 자영업자 중 절반 미만만이 전문대졸 이상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영업이 갖는 기회의 창 역할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준다. 근로시간도 자영업자가 주당 거의 10시간 이상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양 집단 모두 근로시간 감소추세 자체는 장기간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시간당 소득으로 보면 월소득으로 볼 때에 비해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격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자는 시간 자율성을 평균적으로는 더 일해서 더 버는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잠재 소득 능력이 나은 사람들이 좀 더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여부에 따라 자영업 소득 순위 계수 추정치가 크게 축소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에는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9% 내외의 월소득 우위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우위는 추정방식을 달리할 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아닌 고용주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최근인 2014~2019년으로 오면,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소득 순위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에 고용주 소득 순위가 훨씬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과거에 비해 현재 고용주가 되는 사람이 좀 더 소득이 높은 미관측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선택편의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중반 데이터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나, 임시·일용직보다는 소득 잠재력이 월등히 높은 사람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상용직 대비 소득 페널티의 대부분이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인 탓으로, 이 부분

을 통제하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소득 잠재력을 통제해도 임시·일용직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소득 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용직과 비교할 때 월임금으로 볼 때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지만, 임시·일용직 대비 소득 잠재력이 높았던 결과는 사라진다. 임시·일용직 대비 더 길게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성향 때문에 소득 잠재력이 높은 것처럼 보였던 셈이다.

2010년대 중후반으로 오면 월임금 기준으로는 상용직 대비 소득 페널티가 존재하는 점에선 과거와 동일한데, 소득잠재력을 통제해도 여전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소득에 페널티가 존재하게 바뀌었다는 점에선 과거와 다르다. 상용직 대비 페널티가 더 강화된 셈이다. 임시·일용직과도 월소득 기준으로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과거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졌다는 차이가 있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임시·일용직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소득 잠재력이 높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차이를 통제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 프리미엄은 과거와 달리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임시·일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자리 간 격차는 과거에 비해 좁혀졌다는 의미이다. 시간당으로 봐도 상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소득 격차는 월소득으로 볼 때와 본질적 차이가 없으며, 임시직도 그러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자리의 소득 지위가 과거에 비해 하락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위별로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소득이 높은 고분위에서 고용주의 선택편의가 강화된 가운데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 한 상태에서의 격차는 과거에 비해 다소 좁혀졌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최근으로 오면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전 기준으로 모든 분위에서 프리미엄이 아닌 페널티가 나타난 가운데, 특히 저분위에서 페널티가 크게 분식되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2000년대 초중반에는 3-9분위에서는 페널티가 관찰되지 않았고, 특히 8, 9분위에서는 프리미엄이 나타났다. 개인 특성을 통제하고 나서도 2000년대 초중반에는 6-9분위에서 프리미엄이 관찰되었고, 분위가 높을수록 프리미엄도 커졌지만, 2010년대 중후반에는 9분위를 제외하고는 프리미엄이 사라졌다. 다만, 중상위 분위

에서 2000년대 초중반 일자리 프리미엄 덕에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를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전 8, 9분위에서 프리미엄이 나타났다면, 이제는 9분위를 제외하고는 일자리 프리미엄도 없고, 여전히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상위 분위에서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전 일자리 페널티가 관측되는 차이가 있다. 다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갖는 일자리 프리미엄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 선택함에도 4분위 이상에서 근로자와 격차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분위별 회귀계수로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2010년대 중후반에도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도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다소 강화시켰다. 고용주가 주로 상위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특히 시간당 소득 기준으로 볼 경우 하위에서 끌어내리기 때문에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큰 차이라 할 수 있겠다.

### 제 3 장

##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업무 변화와 양극화에 대한 함의

### 제1절 서론

이 장에서는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업무 특성 및 업무 특성별 일자리 변동을 분석하고, 자영업자 일자리가 양극화에 대해 갖는 함의를 도출한다.

자영업자의 일자리가 어떤 업무 특성을 갖는지에 대해 그동안 연구가 거의 없었다. 이는 사실 기존 연구가 의존하는 직업사전이나 직업정보시스템은 직업별로 업무 특성을 파악할 수는 있어도, 자영업자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구분해 파악할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근로환경조사」는 개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업무 특성을 조사해 자영업자들이 임금근로자와 어떻게 업무 특성이 다른지 확인해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이 문제와 관련한 최초의 학술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공식 통계를 활용해 업무 특성에 따른 일자리 변동에서 자영업 일자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흔히 자영업 일자리는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제2의 일자리로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일자리로 받아들여진다. 이 시나리오가 주된 자영업 일자리 진입 경로라면, 반복 업무 특성을 갖는 일자리가 축소되는 장기 트렌드가 존재하는 현재 상황에서 반복 업무 임금근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본인이 주되게 해왔던 반복 업무 관련 자영업을 시작하거나, 또는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났으므로 이보다 소득 면에서 못한 업무 특성에서 자영업업을 시작하는 것이 주된 흐름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이런 일자리도 제대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근로 고용 몫 증감과 자영업 고용 몫 증감을 나누어 관계를 분석해 보면 두 고용 몫 증감 간 음(-)의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영업 일자리는 결국 기회를 포착해야 하는 사업(business)이므로 임금근로 일자리와 같은 트렌드 안에 존재한다면, 두 고용 몫 증감 간에는 정(+)의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주된 흐름이라면 자영업 일자리는 양극화 트렌드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 트렌드를 촉진하거나 적어도 함께하는 일자리로서 역할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영업 부문이 다른 선진산업국가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자리 트렌드 안에서 자영업 부문의 역할이 무엇인지 같은 연구는 되어본 바가 없다. 이 연구는 첫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임금 일자리로 사람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시론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고용 비중은 장기 감소하고는 있지만 그 속도는 매우 완만하다. 앞서 본 것처럼 자영업 일자리는 여전히 페널티보다는 프리미엄에 가까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반복 업무면서 임금근로 일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반복 업무 임금근로 일자리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다른 업무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비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자영업 일자리로 밀려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 일자리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볼 때 자영업에서 임금근로로의 이동 촉진 또한 하나의 과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영업에서 임금근로로 이동하는 것이 그럼 과연 평균적으로도 좋은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 또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제2절에서는 자영업자의 업무 특성을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분석한다. 제3절에서는 자영업 업무 특성과 소득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제4절에서는 일자리 변동에서 자영업은 임금근로와 어떤 관



계를 가지고 있으며,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자영업의 기여는 무엇인지 결론을 도출해 보겠다. 제5절에서는 시론적 분석을 통해 자영업 일자리가 업무 특성별 임금근로자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시사점을 얻어보겠다. 제6절에서는 이 장의 분석을 정리하겠다.

## 제2절 종사상 지위별 업무 특성 차이 기초통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근로환경조사」를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여러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근로환경조사는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 명(가구당 1명씩 총 5만 가구)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횡단조사이다. 유럽연합(EU) 산하 유로파운드(Eurofound)가 1990년부터 실시한 유럽근로조건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를 벤치마킹하여 2006년부터 실시된 조사이다. 3년에 한 번씩 실시되며, 현재 가장 최신 자료는 2017년의 제5차 조사이다. 유럽의 업무 특성 분석 연구에서 이 유럽근로조건조사는 종종 활용되는 주요 연구자료이다.

보통 이 조사를 활용한 연구들은 지적 업무(intellectual task), 추상 업무(abstract task)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주로 하는 일이 복잡하다, 나의 업무에 내 생각을 적용할 수 있다, 내 업무의 질을 스스로 평가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업무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를 사용한다. 반복업무(routine task)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일에 반복적 손동작이나 팔동작이 포함된다, 1분보다 짧게 반복되는 작업, 10분보다 짧게 반복되는 작업이 포함된다, 업무가 단조롭다, 자동화 라인 속도 또는 제품의 이동 속도 루틴을 사용한다.

육체 업무를 측정하는 항목으로는 일에 피로하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 사람들을 들어 올리거나 이동시킴,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밀거나, 이동시킴이 사용된다.

이 조사에서는 업무에서 컴퓨터 활용도 파악한다. 일을 위해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작업, 업무를 위해 인터넷, 전자우편 사용

이 그런 항목의 사례이다. 또한, 업무에서 동료 외 사람 상대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업무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업무에 활용되는지는 업무를 위해 동료 외 사람 상대하는지가 사용된다.

이 외에도 이 조사를 통해서 업무에서 ICT 활용도 파악할 수 있다.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작업하는지, 업무를 위해 인터넷, 전자우편을 사용하는지가 이 목적으로 활용되는 문항이다.

각 문항은 1-7점(항상 그렇다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까지) 스케일이나 1-5점, 또는 그렇다/아니다 0-1점으로 되어 있지만, 분석을 위해 0-1 스케일로 변환한 상태에서 직업별로 평균점수를 제시하였다.

〈표 3-1〉 직업별 업무특성 평균 점수

	동료 외 사람 상대	반복적 손동작이나 팔동작	1분보다 짧게 반복되는 작업	10분보다 짧게 반복되는 작업
관리자	0.38	0.40	0.09	0.1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55	0.47	0.12	0.18
사무 종사자	0.36	0.48	0.11	0.17
서비스 종사자	0.68	0.55	0.18	0.28
판매 종사자	0.76	0.43	0.12	0.1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17	0.58	0.24	0.32
기능원및관련기능	0.40	0.60	0.18	0.30
장치,기계조작및조립	0.35	0.64	0.22	0.32
단순노무 종사자	0.42	0.57	0.19	0.27
전 체	0.49	0.52	0.15	0.23
	예상치 못한 문제해결	업무가 단조롭다	업무를 위해 늘 새로운 것 학습	업무가 복잡하다
관리자	0.67	0.18	0.40	0.5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68	0.22	0.49	0.59
사무 종사자	0.59	0.28	0.36	0.54
서비스 종사자	0.64	0.57	0.26	0.26
판매 종사자	0.65	0.58	0.25	0.2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75	0.68	0.27	0.21
기능원및관련기능	0.73	0.38	0.35	0.51
장치,기계조작및조립	0.64	0.56	0.23	0.32
단순노무 종사자	0.52	0.76	0.11	0.12
전 체	0.64	0.42	0.33	0.42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지적 업무, 추상업무 측정 항목으로 활용되는 업무가 복잡하다는 응답은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에서 높게 나타나고, 현장직 숙련공에 해당되는 기능원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업무를 위해 늘 새로운 것을 학습한다는 응답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문제해결도 관리자, 전문가에게서 높긴 했지만,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판매종사자, 서비스 종사자에게서도 높게 나타났다. 손님 대응 시 예상치 못한 불만에 대응해야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날씨 변동 등)에 대응해야 하는 점 등이 이 문항 점수가 높은 요인일 것이다. 이를 보면, 새로운 것 학습이나 업무가 복잡하다가 추상업무, 지적 업무를 측정하는 더 중요한 항목임을 보여준과 함께 문제 해결능력이 상당히 많은 직업군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역량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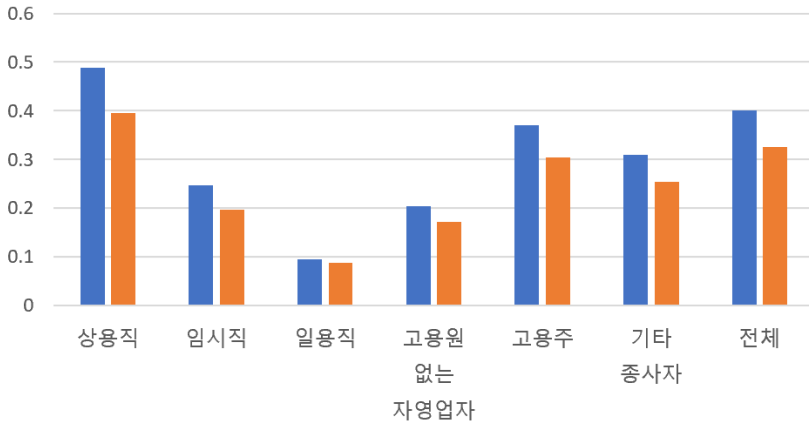
반복 업무를 측정하는 반복적 손동작이나 팔동작, 10분보다 짧게 반복되는 작업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능원, 단순노무직, 농림어업, 서비스 종사자에서 공히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좀 더 좁혀 1분보다 짧게 반복되는 작업에 대한 응답을 보면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원, 농림어업에서 특히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업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동료 외 사람 상대는 예상가능한 것처럼

〈표 3-2〉 직업별 ICT 활용 점수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가지고 작업	업무를 위해 인터넷, 전자우편 사용
관리자	0.56	0.51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0.57	0.44
사무 종사자	0.77	0.59
서비스 종사자	0.20	0.16
판매 종사자	0.42	0.3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11	0.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22	0.1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18	0.15
단순노무 종사자	0.15	0.12
전체	0.43	0.34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1] 종사상 지위별 업무특성 점수(0-1점) : 업무에서 ICT 활용



■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작업 ■ 업무를 위해 인터넷, 전자우편 사용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판매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에게서 특히 높게 나타나며, 전문가(이르테면 교육 전문가)에게서도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ICT 활용 점수도 확인해 보았다.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에게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높은 가운데 판매종사자도 나머지 직업군보다는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예상 가능한 것처럼 농림어업 숙련자와 단순노무 종사자에게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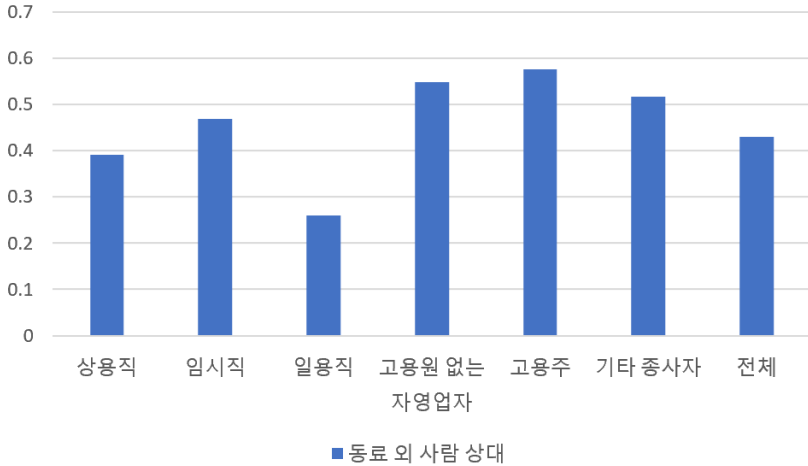
다음으로 종사상 지위별로 각 업무특성 항목별 점수를 확인해 보았다. 종사상 지위 항목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고용주, 기타 종사자로 나뉘는데, 기타 종사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된다. 상용직 > 고용주 > 기타 종사자 > 임시직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일용직 순으로 ICT 활용 측정 항목에 응답되었다.

상호작용 업무를 의미하는 동료 외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는 고용주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기타종사자 > 임시직 > 상용직 > 일용직 순으로 나타나 고객을 상대할 일이 많은 비임금근로자 특성이 잘 드러나고, 판매직과 서비스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은 임시직 특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반복 업무는 업무에서 반복적 손동작이나 팔동작이 있다, 10분보다 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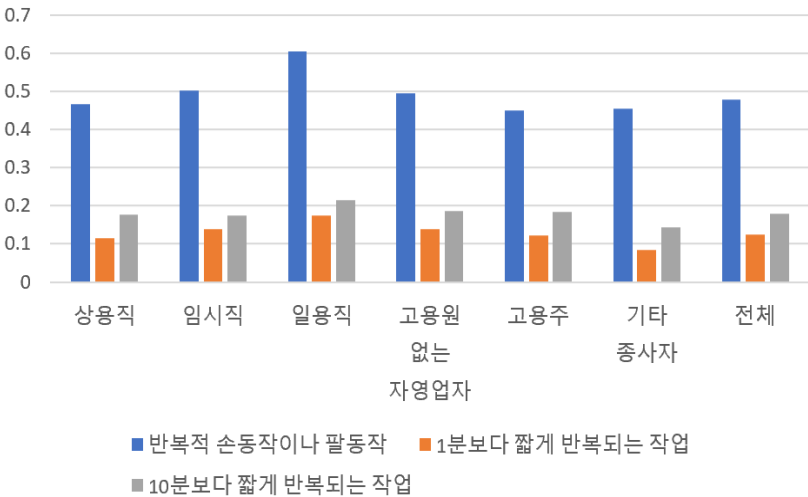
게 같은 작업이 반복된다, 1분보다 짧게 같은 작업이 반복된다고 측정되는데, 각 항목에서 고루 일용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에는 임시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상용직, 고용주 > 기타 종사자 순이었다.

(그림 3-2) 종사상 지위별 업무특성 점수(0-1점) : 동료 외 사람 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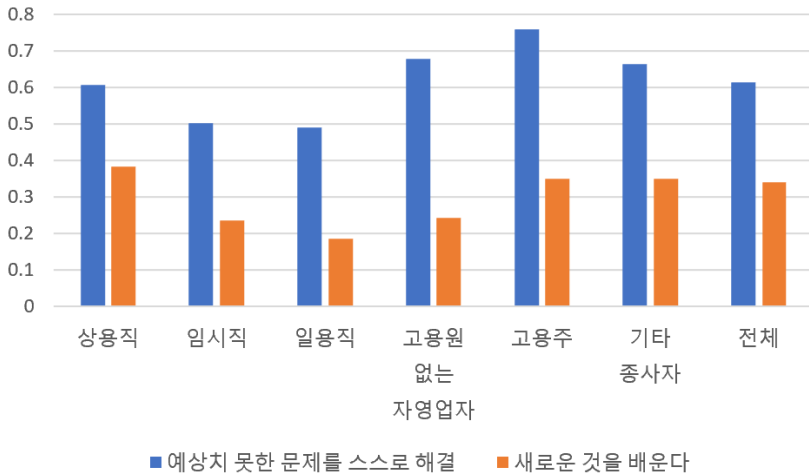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그림 3-3) 종사상 지위별 업무특성 점수(0-1점) : 반복적 업무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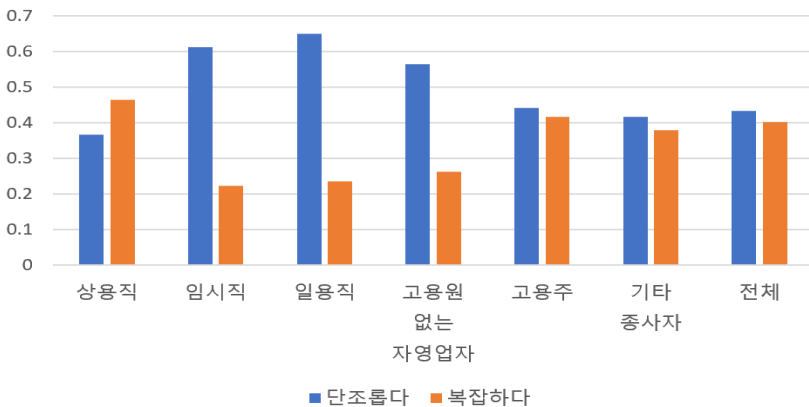
(그림 3-4) 종사상 지위별 업무특성 점수(0-1점) : 지적, 추상적 업무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지적 업무, 추상적 업무 항목에는 문제 해결, 새로운 것 배워야 한다, 복잡하다가 포함된다. 문제해결은 고용주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기타 종사자 > 상용직 > 임시직, 일용직 순으로 나타나 사업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 특징이 잘 드러났다.

(그림 3-5) 종사상 지위별 업무특성 점수 : 지적, 추상적 업무(복잡하다)와 단순 업무(단조롭다)



자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업무를 위해 늘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상용직 > 고용주, 기타 종사자 > 임시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일용직 순으로 나타났다. 업무가 복잡하다는 응답은 상용직 > 고용주 > 기타 종사자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임시직, 일용직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업무가 단조롭다는 일용직 > 임시직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 고용주, 기타 종사자 > 상용직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각 직업군의 색깔이 업무 특성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편이라면, 종사상 지위로는 여러 직업군이 뒤섞인 특성상 중첩되는 특성이 드러난다. 고용주는 지적, 추상적 업무 수준도 높으면서 사업하는 사람으로 고객을 많이 상대하는 특성상 사회적 상호작용 숙련도도 높아야 했다. 해외 문헌을 보면 ICT 활용은 대개 지적, 추상적 업무 수준과 같이 움직이는데, 상용직은 ICT 활용 수준 또한 평균 수준보다 크게 높았지만, 지적, 추상적 업무 수준이 평균보다 높은 고용주는 ICT 활용 면에서는 평균 내외, 기타 종사자도 평균에 못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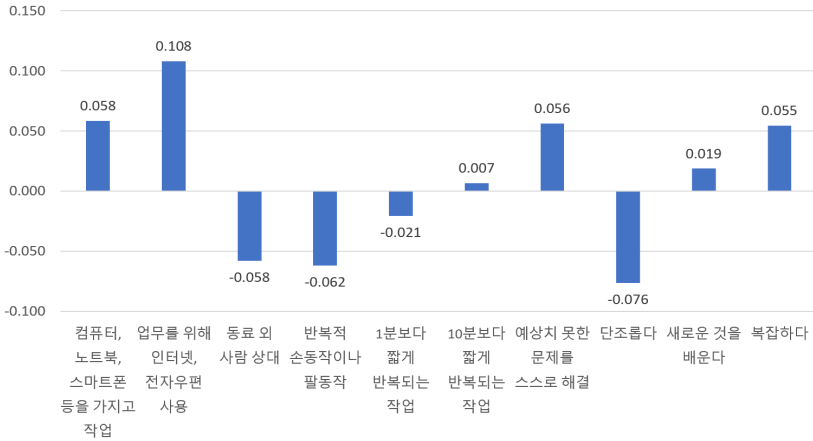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업무의 단조로움, 반복성,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정도, ICT 활용 등 여러 면에서 임시직과 유사한 특징이 나타났다는 점은 예상과는 다소 다른 특징이었다.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으로서의 특성 때문인지 문제해결(지적, 추상적 업무), 사회적 상호작용 업무 수준은 임시, 일용직과 비교되지 않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특징도 있었다.

### 제3절 자영업자, 근로자의 소득 격차와 업무특성 차이

업무특성과 월평균 소득 간의 관계를 보기 위해 월평균 소득을 종속변수로, 위의 업무특성을 설명변수로 하는 선형회귀모형을 추정 후 각 업무특성 중요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화 회귀계수를 보고하였다. 25~64세 한정된 결과이며, 2014년과 2017년 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연도더미를 통제된 상태에서 가중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보면, 높은 임금과 관련되는 업무 특성 순서는 업무를 위해 인터

(그림 3-6) 업무특성과 임금 간 관계 : 표준화 회귀계수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넷, 전자우편 사용 >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작업 > 예상치 못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 > 업무가 복잡업무 > 새로운 것을 배운다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낮은 임금과 관련되는 업무 특성 순서는 업무 단조로움 > 반복적 손동작이나 팔동작 > 동료 외 사람 상대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보면 지적, 추상적 업무와 관련된 특성들이 강할수록 임금을 올리는 효과, 업무의 단조로움 및 반복성,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된 특성의 중요성이 높을수록 임금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컴퓨터 활용이 많을수록 임금은 높게 나타났는데, 노트북, 스마트폰을 이용한 작업보다는 업무에 인터넷이나 이메일을 활용하는지가 훨씬 큰 임금효과를 보였다. 단말기 활용은 다양한 직업군에서 활용되는 반면, 업무에서 인터넷, 이메일을 활용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는 보다 화이트칼라 직업군과 관련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다음으로, 성별, 교육수준,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종사상 지위, 업무 특성 변수를 통제할 때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았다. 2014, 2017년 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연도더미를 통제하였다. 종속변수는 시간당 소득과 월소득 모두에 대해 해 보았다. 업무 특성 변수는 비교를 위해 모두 평균 0, 표준편차 1로 정규화하였다.



〈표 3-3〉 업무 특성과 종사상 지위의 임금과의 관계 : 근로환경조사 분석 결과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			(4)
	(1)	(2)	(3)	종속변수: 월소득
기준: 상용직				
임시직		-0.238*** (0.0120)	-0.183*** (0.0125)	-0.349*** (0.0130)
일용직		-0.166*** (0.0176)	-0.109*** (0.0182)	-0.322*** (0.019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0.0923*** (0.00974)	-0.0314*** (0.0105)	0.0510*** (0.0103)
고용주		0.251*** (0.0144)	0.285*** (0.0147)	0.399*** (0.0137)
기타 종사자		0.0251 (0.164)	0.0465 (0.164)	-0.0396 (0.154)
기준: 초졸 미만				
초졸		0.0138 (0.0673)	0.0244 (0.0670)	0.147** (0.0715)
중졸		0.145** (0.0671)	0.161** (0.0669)	0.355*** (0.0713)
고졸		0.315*** (0.0663)	0.311*** (0.0661)	0.530*** (0.0705)
전문대졸		0.474*** (0.0673)	0.423*** (0.0674)	0.609*** (0.0717)
대졸		0.704*** (0.0670)	0.592*** (0.0671)	0.712*** (0.0714)
대학원졸		1.043*** (0.0817)	0.909*** (0.0809)	0.950*** (0.0845)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가지고 작업	0.0455*** (0.00624)		0.0116* (0.00617)	0.00463 (0.00610)
업무를 위해 인터넷, 전자우편 사용	0.0832*** (0.00658)		0.0580*** (0.00633)	0.0533*** (0.00626)
동료 외 사람 상대	-0.0501*** (0.00424)		-0.0361*** (0.00419)	-0.0176*** (0.00412)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	-0.0521*** (0.00407)		-0.0234*** (0.00394)	-0.0212*** (0.00387)
1분보다 짧게 반복되는 작업	-0.0172*** (0.00397)		-0.0133*** (0.00381)	-0.0159*** (0.00372)
10분보다 짧게 반복되는 작업	0.00537 (0.00487)		0.00549 (0.00476)	0.0122*** (0.00468)

〈표 3-3〉의 계속

	종속변수: 시간당 소득			(4)
	(1)	(2)	(3)	종속변수: 월소득
예상치 못한 문제 스스로 해결	0.0473*** (0.00384)		0.0207*** (0.00370)	0.0247*** (0.00364)
업무가 단조롭다	-0.0643*** (0.00440)		-0.0380*** (0.00420)	-0.0273*** (0.00410)
업무를 위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	0.0145*** (0.00416)		0.00914** (0.00402)	0.00543 (0.00394)
업무가 복잡하다	0.0424*** (0.00466)		0.0232*** (0.00453)	0.0333*** (0.00449)
Observations	75,225	76,719	74,808	75,184
R-squared	0.106	0.176	0.189	0.210

주: 괄호 안은 로버스트 표준오차. 성별, 연령 통제하였음. 25~64세 한정된 분석 결과. \*\*\* p<0.01, \*\* p<0.05, \* p<0.1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환경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성, 교육, 연령, 종사상 지위를 통제하면 각 업무 특성 변수 계수 절대값은 대부분의 경우에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여전히 업무를 위해 인터넷, 전자우편 사용이 가장 중요한 가운데, 8.3% 증가에서 5.8% 증가로 계수 규모는 축소되고, 업무가 복잡하다, 예상치 못한 문제 스스로 해결,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가지고 작업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나 계수 값은 대부분 절반 내외로 축소되었다. 업무가 단조롭다, 동료 외 사람 상대,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동작, 1분보다 짧게 반복되는 작업은 여전히 임금과 부(-)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이 경우에도 대부분의 계수 절대값이 절반 가까이 축소되었다.

종사상 지위 변수도 업무 특성을 통제한 뒤 상당한 절대값 감소가 나타났다. 상용직 대비 임시직은 23.8% 낮은 것에서 18.3% 낮은 것으로 차이가 축소되었으며, 일용직은 상용직 대비 16% 낮았으나 10%로 낮은 것으로 차이가 상당폭 축소되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용직 대비 9% 낮았는데 업무 특성을 통제한 후에는 3% 낮은 것으로 축소되어 무려 1/3 수준으로 차이가 축소되었다. 반대로 고용주는 차이가 확대되었다. 앞서 고용주는 상용직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업무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한편, 소득과 부(-)의 관계에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용도 높은 업무 특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이 같다면, 고용주 일자리 프리미엄은 상용직보다 25% 높은 것이 아니라 대략 10% 이상 더 큰 28.5% 높은 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종사상 지위 간 소득 격차의 상당 부분은 각 종사상 지위가 주로 하는 업무 특성 차이를 반영함을 보여준다. 특히 상용직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차이의 2/3 정도가 업무 특성 차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본 것처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문제 해결능력 같은 일부 사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항목을 빼면 거의 모든 업무 특성에서 임시직과 유사한 특성이 있었다.

시간당 소득과 월소득 회귀계수 간 차이는 근로시간에 따른 소득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업무 특성 계수는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종사상 지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임시직과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훨씬 계수 절대값이 커지면서 차이가 확대된다. 이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과 일용직은 근로시간이 짧아 근로시간 차이까지 고려된 월소득 격차는 시간당 격차에 비해 더 커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시간당 소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용직보다 낮았으나, 월소득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용직보다 근로시간이 긴데, 이 긴 수준이 시간당 임금의 (-)를 월소득 (+) 차이로 바꿀 만큼 길다는 의미가 되겠다. 고용주도 시간당으로 볼 때보다 격차가 확대되었다. 마찬가지로 상용직보다 고용주의 긴 근로시간의 결과라 볼 수 있다. 기타종사자는 어떻게 보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용직과 다르지 않은데, 시간당으로는 회귀계수가 (+), 월소득으로는 (-)여서 근로시간이 상용직보다 짧아서 생간 현상으로 추측 가능하다.

## 제4절 자영업자의 일자리 양극화에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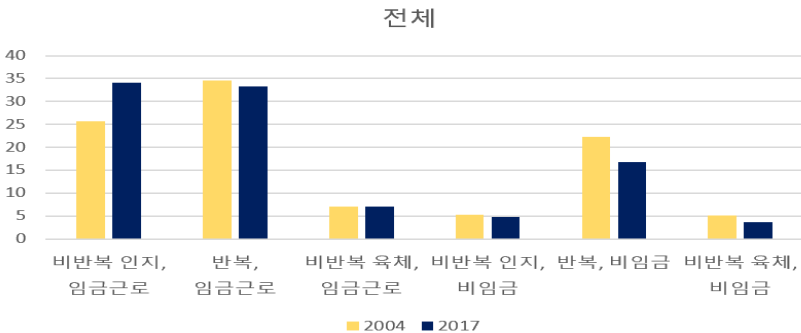
### 1. 기초통계

[그림 3-7]은 통상 문헌에서 정의되는 바대로 관리, 전문, 사무직은 비반복 인지업무로, 서비스직은 비반복 육체업무로, 나머지는 반복 업무로 정의 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직업분류가 일치된 가장 긴 시계열인 2004년과 2017년을 대상으로 업무 특성별, 종사상 지위별 고용 몫 변동을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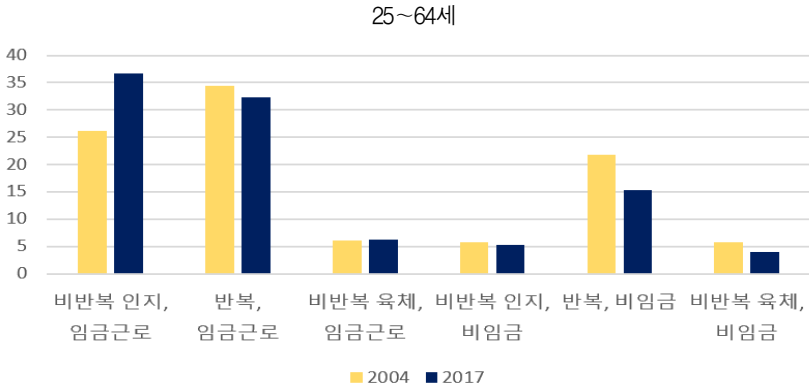
사무직은 미국 연구에선 반복 업무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표준직업분류상 관리직과 사무직이 하는 업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때 사무직을 반복 업무로 분류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앞서 본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사무직은 전문가 및 관리직과 밀접한 업무특성 유사성이 있었다. 각종 지적, 추상적 업무특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반복성과 관련된 업무특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ICT 활용에서도 반복성이 특징인 업무들과 달리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관리, 전문, 사무직은 비반복 인지업무로 분류하고 분석하겠다.

[그림 3-7]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업무 특성별 고용 몫 변화

(단위: %)



(그림 3-7)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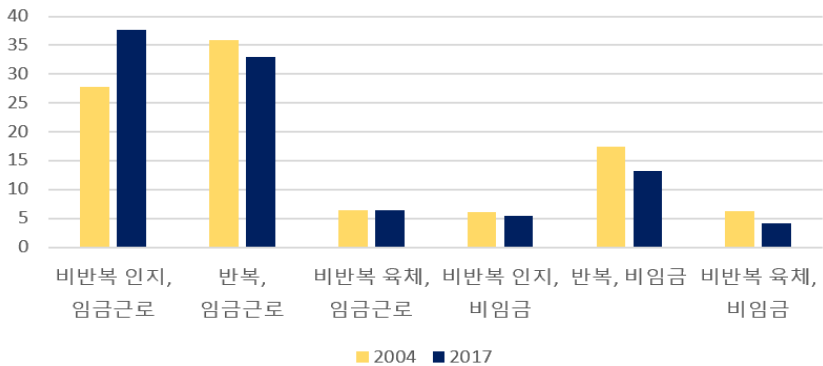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전체를 대상으로 고용 몫 변화를 분석해 보면, 비반복 인지업무이면서 임금근로인 일자리의 고용 몫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4년에만 해도 반복, 임금근로 > 비반복 인지, 임금근로 > 반복, 비임금 > 비반복 육체, 임금근로 > 비반복 인지, 비임금 > 비반복 육체, 비임금 순으로 고용 몫이 컸는데, 2017년이 되면 비반복 인지 임금근로 고용 몫이 반복 임금근로 고용 몫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농림어업 제외하고 본 고용 몫

(단위: %)



주: 25~64세,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합쳐 2004년과 2017년 간 각 업무 고용 몫 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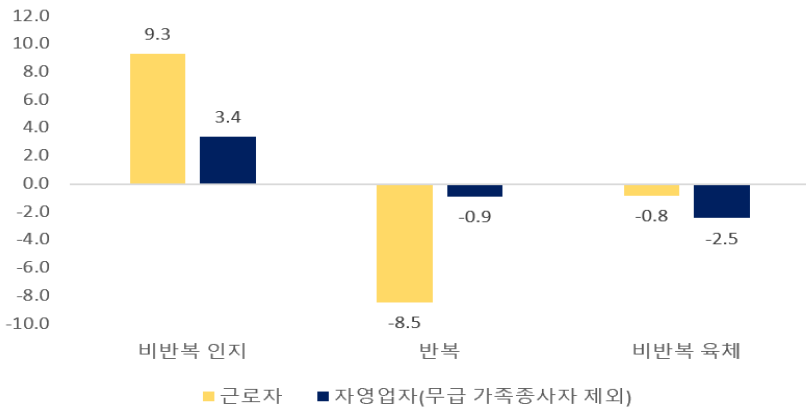
고용 륜 변화로 보면 가장 큰 증가는 비반복 인지 임금근로 일자리에  
서, 가장 큰 감소는 반복 비임금 일자리에 나타났다. 비반복 육체 임금  
근로와 비반복 인지 비임금 일자리 고용 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  
으나, 반복 임금근로, 비반복 육체 비임금 일자리 고용 륜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보면 전체 일자리를 임금/ 비임금 × 비반복 인지, 반복, 비반  
복 육체로 나눠 고용 륜을 계산해 보면 2004~17년 간 가장 크게 고용 륜  
이 감소한 것은 반복 비임금 일자리인 셈이 되어 반복 업무 감소는 비임  
금 일자리에 주도된 것처럼 나타난다. 비반복 인지 업무 증가는 임금근  
로 일자리에 주도된 것처럼 나타난다.

전체를 대상으로 보나, 25~64세로 제한해 보나 본질적 차이는 존재하  
지 않는다. 차이가 있다면, 2004년과 2017년 간 비반복 인지 임금근로 일  
자리 고용 륜이 연령을 제한할 때 더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대신 반복  
비임금 일자리는 더 크게 고용 륜이 감소했다. 자영업 부문에서 농림어업  
비중이 상당하므로,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보아도 본질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반복 비임금근로의 고용 륜 절대 수준이 다

(그림 3-9) 임금근로, 자영업 구분해서 본 고용 륜 변화

(단위: %)



주: 25~64세, 농림어업을 제외하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나눠 2004년과 2017  
년 간 각 업무 고용 륜을 계산한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소 감소하는 차이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반복 일자리의 감소가 임금근로 일자리보다는 비임금 일자리에 의해 더 주도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다.

임금근로 일자리 비중은 동 기간 크게 증가하고,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았으므로, 임금근로 일자리 안에서는 반복 임금근로가 크게 감소해도 임금근로 일자리 자체의 증가 때문에 이 현상이 제대로 관측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자영업자 일자리 비중은 감소했기 때문에 동 기간 전체로 보면 자영업자 내 비반복 인지 일자리 비중이 증가했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관측이 안 되었을 수 있다. 임금/비임금 안에서는 업무 특성에 따라 어떤 변동이 있었는지 보기 위해 나누어서 계산한 결과가 [그림 3-9]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임금근로 내에서 반복 업무 일자리는 비반복 인지 일자리 증가를 거의 상쇄할 만큼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비반복 육체 업무도 미미하게 감소했다. 보통 반복 업무 감소, 인지 업무의 증가 및 비반복 육체 업무도 다소 증가하는 것을 기술변화의 결과(특히 반복 업무 감소 기술변화, 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 가설)로 설명하곤 하는데, 우리나라에선 비반복 육체 업무의 증가 자체는 임금근로 내에서만 보면 고용 몫 변화 측면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 셈이다.

비임금근로에서도 비반복 인지 업무는 고용 몫 증가가 확연하다. 다만, 반복 일자리 감소는 앞서 임금근로, 비임금근로를 합쳐서 볼 때만큼 확연하지는 않으며, 그 그림들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비반복 육체 일자리 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자영업만 놓고 보면 숙련 편향 기술변화라고 흔히 불리는 고숙련 일자리일수록 많이 증가하고, 미숙련 일자리일수록 감소가 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설의 예측이 바로 인지 업무의 증가, 반복 육체 업무뿐 아니라 미숙련 일자리 특성이 강한 비반복 육체 업무의 큰 감소이기 때문이다.

## 2. 중위 임금 수준별 일자리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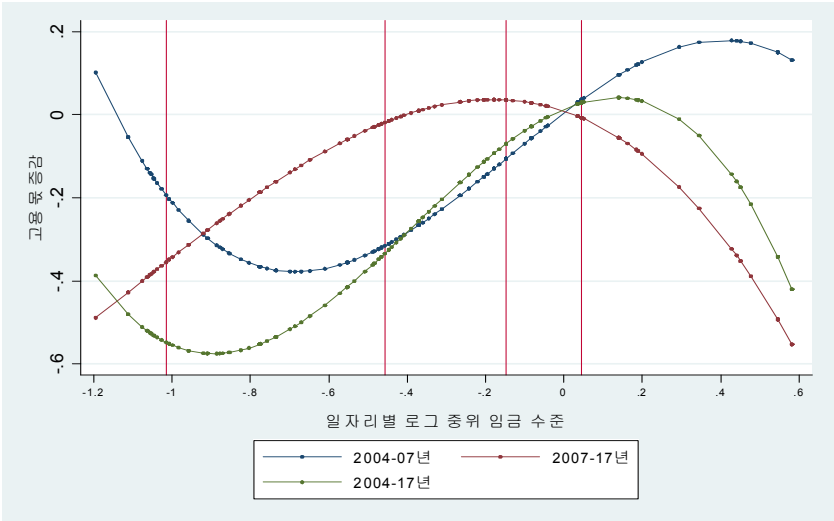
여기서는 산업×직업 대분류를 교차해 각 셀별 일자리의 중위 임금을

계산해 줄을 세워 시기별 어디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는지 확인해 본다. 이 분석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여 수행했는데, 자영업자의 산업×직업별 일자리 중위 임금 서열도 근로자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하였다.

대개 반복 업무가 많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중간 정도 임금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제조업 생산직이나 단순 사무직 일자리가 반복 일자리의 대표적 예인데, 습속기간,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해 대개 저임금 일자리는 아닌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적, 추상적 업무가 강한 일자리는 임금도 높은 특성이 있다. 비반복 육체 업무가 강한 일자리는 청소원이 대표적 일자리라 볼 수 있고, 대체로 임금이 낮은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반복 일자리 감소 기술변화 가설에서는 기술변화가 일자리 서열대로 줄을 세우면 중간에서 일자리가 가장 크게 줄고 양극단에서 증가하는 U자형 일자리 고용 몫 증가가 나타난다고 주장된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 직업 분류가 일치되어 있다. 이 외에는 이렇게 장기간 산업, 직업 분류가 일치된 시점이 없다. 따라서 이 기간을 대상으로 국제금융위기 전후를 나눠 임금 서열별 일자리의 고용 몫 증감을 분석해 보았다.

(그림 3-10) 근로자의 중위 임금 서열별 일자리 고용 몫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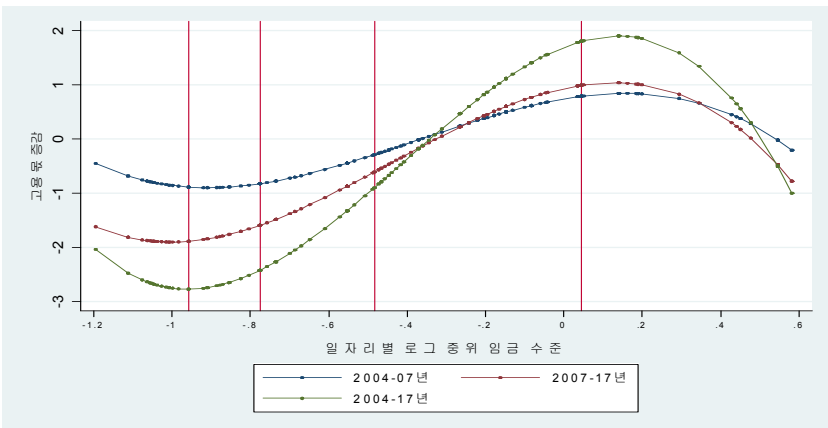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가로축은 일자리별 로그 중위 임금 수준을 보여주며, 세로 축은 일자리별 고용 몫 증감이다. 빨간 세로줄은 좌측부터 우측으로 하위 1분위, 5분위, 7.5분위 9분위 임금이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린 그림이다. 고용 몫 증감을 종속변수로, 일자리의 로그 임금 수준을 설명변수로 세제공까지 포함시키고, 가중치로 2004년 각 산업×직업 고용량을 부여하여 적합한 회귀분석 예측치가 그려져 있다.

이를 보면, 2004~07년은 중위 임금 근방에서 고용 몫이 가장 많이 줄고 양극단에서는 증가 내지는 덜 감소하는 형태의 U자형의 양극화가 나타났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시기를 포괄하는 2007~17년 간을 보면 반대로 5분위와 7.5분위 사이에서 가장 일자리 증가가 크고 나머지 극단에서는 작은 역U자형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나 일자리 양극화가 이 기간에는 완화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가 거의 20년 만에 크게 감소한 특별한 시기가 맞물려 있는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4~17년까지 전 기간을 대상으로 보면 1분위 위에서 저점, 9분위 근방에서 고점인 숙련 편향 기술변화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났다. 국제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는 일자리 변동 양상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양 기간을 합쳐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은 감안하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림 3-11) 자영업자의 중위 임금 서열별 일자리 고용 몫 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자영업자는 어땠는지도 확인해 보았다.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 후 분석하였는데, 모든 분석시기에서 고임금 일자리일수록 증가가 나타나는 숙련편향 기술변화 가설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났다. 그나마 2004~07년 정도가 1분위와 5분위 사이에 저점이 있어 약하게 U자형에 가까운 모습이 나타나는 정도이다. 역U자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난 2007~17년 간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이 기간에도 1분위가 1점, 9분위가 정점인 숙련 편향 기술변화에 가까운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일자리가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선택하는 일자리 유형이라면, 근로자 사이에서 축소되는 반복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옮기면서 반복 일자리 유형의 자영업 일자리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상정해볼 수 있다. 만약 이런 유형의 변화가 주된 흐름이라면, 근로자에게서 고용 몫이 감소하는 일자리에서 자영업자 고용 몫이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만약 임금근로자 일자리별 고용 몫 변화와 자영업자의 일자리별 고용 몫 변화를 회귀분석하면 서로를 대체하는 음(-)의 회귀계수가 추정될 것이다.

반대의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 자영업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사업 기회에 반응해야 한다. 근로자 사이에서도 축소되는 형태의 일자리가 자영업에서 늘어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는 상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자영업 일자리가 이런 트렌드에 더 빨리 반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성재민 등(2018)에 따르면, 자영업 일자리로의 진입은 흔히 생각하듯 주된 일자리 은퇴연령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30대부터 50대까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창업이 나타남을 발견한 바 있다. 자영업자에 중고령층이 많은 것은 살아남은 데에 성공한 자영업자들이 오래 자영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자영업 일자리 고용 몫 변화가 근로자 고용 몫 변화와 정(+)의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업×직업 대분류별로 시기별 근로자 고용 몫 변동과 자영업자 고용 몫 변동을 분리해 계산하여 근로자 고용 몫이 증가한 곳에서 자영업자 고용 몫도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분석해 보았다. 2004년 각 산업×직업별 일자리 고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회

〈표 3-4〉 시기별 자영업자 고용 몫 변동과 근로자 고용 몫 변동 관계

종속변수: 자영업자 고용 몫 변화		회귀계수	표준오차	P값
2004~2007	근로자 고용 몫 변화	2.473	0.202	0.000
	상수항	0.323	0.052	0.000
	R-squared	0.4806		
2007~2017	근로자 고용 몫 변화	4.829	0.342	0.000
	상수항	0.049	0.068	0.475
	R-squared	0.5511		
2004~2017	근로자 고용 몫 변화	7.442	0.082	0.000
	상수항	1.611	0.031	0.000
	R-squared	0.980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모두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R^2$ 와 회귀계수를 보면 국제금융위기 이후가 더 강한 관계를 가지며,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할 때 더 강한 관계를 보인다. 선후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근로자 고용 몫이 증가한 일자리에서 자영업자의 고용 몫도 증가했고, 근로자 고용 몫이 감소한 일자리에서 자영업자의 고용 몫도 감소했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밀려난 일자리에서 해당 숙련을 가지고 자영업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경향은 적어도 추정결과로는 지지되지 않으며, 고숙련 일자리는 증가하고 그렇지 않은 일자리는 감소하는 트렌드에 맞춰 자영업 일자리 또한 움직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양극화를 강화시키거나 고숙련 편향 기술변화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자영업 일자리 또한 움직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제5절 자영업자의 소득 격차와 자영업 일자리 트렌드에서 자영업으로의 진입의 의미: 시론적 분석

자영업은 앞서 본 것처럼 근로자 대비 일정한 소득 격차를 보인다. 음

(-)의 소득 격차를 보이더라도 근로자로 머물렀으면 더 낮은 소득을 받았을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 일자리 자체는 프리미엄으로 귀결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으로 진입한 사람들의 장기 성과는 근로자 대비 어떨까 질문해볼 수 있다. 특히 기술변화로 인해 반복 일자리 감소 트렌드가 존재하고, 비록 반복 업무를 줄이는 기술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비반복 육체 업무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임금이 좀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 자영업 일자리에도 비반복 인지, 반복, 비반복 육체 업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존재하는 일자리들로 들어온 사람들의 장기 성과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자영업 일자리가 비중으로는 증가하지 않아도 일정한 비율의 사람들이 꾸준히 자영업 일자리로 진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 비중이 완만하게만 쇠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반복 업무이면서 근로자인 일자리에서 다른 반복 업무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반복 일자리 쇠퇴 트렌드상 다른 이동에 비해 불리하다면, 반복 업무이면서 비임금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도 유사하게 불리하다고 할 수 있을지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평균적으로는 자영업 일자리는 자신의 개인 소득력 대비 약간의 프리미엄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자영업 안에서도 반복 일자리는 쇠퇴 트렌드가 있는데 반복 업무 임금근로자가 반복 업무 자영업 일자리로 이동할 때 일정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자영업 일자리가 평균적으로는 막다른 골목이라기보다는 기회의 창 역할을 하고 있고, 나이가 증가할수록 자영업 영위 확률도 증가한다. 일자리로서는 자영업이 우리나라 일자리 트렌드를 같이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자영업 일자리는 쇠퇴하는 일자리에서조차 근로자로 남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자영업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하지 않고 노동시장에서 여전히 상당한 역할을 개인이 나이가 들수록 하고 있는 원인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시론적 분석을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2000년대 초반 임금근로자였다가 2016년에 여전히 임금근로자로 일하거나 자영업으로 옮긴 사람들을 업무 특성별로 구분해 임금 증가 정도를 확인해 보았

다. 20명 미만 표본인 셀은 비운 상태에서 <표 3-5>를 보고하였다.

2016년 월평균 소득으로 보면, 인지 비임금에 머무른 사람 > 인지 임금 근로 → 인지 비임금근로로 이동한 사람 > 반복 임금근로 → 인지 비임금 근로로 이동한 사람 순으로 소득이 높았다. 임금근로 안에서 이동하거나 머무른 사람은 대체로 인지, 비임금근로로 이동하거나 머무른 사람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았다. 인지 임금근로에 머무른 사람보다 심지어 반복 비임금으로 이동한 사람이 다소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반복 임금근로에 있던 사람들은 인지, 임금근로로 이동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전부 비임금 근로로 이동한 사람이 어떤 업무형태로 이동했든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소득 기준으로 비임금에 있다가 임금근로로 이동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지 못했다. 업무 특성에 따라 134만 원에서 227만 원으로 육체 임금근로에서 반복 임금근로로 이동한 사람, 반복 임금근로에서 육체 임금근로로 이동한 사람들 수준밖에 되지 못했다.

<표 3-5> 업무 특성별, 종사상 지위별 변화에 따른 2001~2016년 간 소득 상승률 및 2016년 월평균 소득

		비반복 인지, 임금 근로	반복, 임금 근로	비반복 육체, 임금 근로	비반복 인지, 비임금	반복, 비임금	비반복 육체, 비임금
월평균 소득 상승 (배)	인지, 임금근로	2.6	2.3	-	2.4	3.1	-
	반복, 임금근로	2.4	2.3	2.2	3.1	2.6	2.9
	육체, 임금근로	-	2.5	2.4	-	-	-
	인지, 비임금	-	-	-	2.0	-	-
	반복, 비임금	-	1.1	0.7	-	1.9	2.1
	육체, 비임금	-	1.5	1.1	-	1.3	1.6
2016년 (19차) 월평균 소득 (만 원)	인지, 임금근로	424	316	-	485	430	-
	반복, 임금근로	309	288	171	455	340	289
	육체, 임금근로	-	193	303	-	-	-
	인지, 비임금	-	-	-	627	-	-
	반복, 비임금	-	196	171	-	345	396
	육체, 비임금	-	227	134	-	262	292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저자 분석.

반면에 반복 비임금에 머무른 사람, 육체 비임금에 머무른 사람, 반복 비임금과 육체 비임금을 교차해 이동한 사람들은 반복 비임금에서 반복 임금근로나 육체 임금근로로 이동한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육체 비임금에서 임금근로로 이동한 사람들과 비교해 육체 비임금에서 다른 비임금으로 이동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인상 정도로 보아도 가장 많이 인상된 사람은 반복 임금근로에서 인지 비임금으로 이동한 사람이며, 대체로 보면 인지 임금근로나 반복 임금근로에서 모든 업무형태의 비임금근로로 이동한 사람들이 모두 가장 높은 소득 인상수준을 보였다.

이를 보면 가장 안 좋은 것은 반복 비임금이나 육체 비임금에 있다가 다른 업무형태의 임금근로로 이동한 경우이다. 고용 몫이 증가하는 인지 비임금에 머무르는 것은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볼 수 있었다.

임금근로에서 비임금근로로 이동하는 것이나 비임금에서 비임금으로 이동하는 것은 현재 소득 수준 기준으로 볼 때 좋은 선택에 속했다. 그러나 육체 임금근로에서 반복 임금근로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니었다. 반복 임금근로에 있던 사람은 인지 임금근로로 이동하지 못한다면 비임금으로 이동하는 것이 나왔다. 설령 육체 비임금으로 이동해도 육체 임금근로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나왔으며, 반복 임금근로에 머무는 것보다도 육체 비임금으로 이동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다(인상률에서 볼 때).

아무것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통계만 확인한 것이지만, 노동 시장 전체로 보면 자영업이 반복 업무 감소를 주도하긴 하나, 개인의 생애사로 보면 자영업이 반복 업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소득 상승 도모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연령효과 등 생애사가 아닌 순수한 이동으로 다양한 변수를 통제해 고립시켰을 때도 자영업이 이런 기능을 할지는 분석해 봐야 한다. 여기까지 분석해야 자영업이 경제 전체의 업무 변동 트렌드에서 개인적으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양과 질 양면에서 전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 제6절 소 결

지금까지 자영업자의 업무 특성을 근로자와 비교해 살펴보고, 업무 특성별 일자리 변동을 분석하였다. 유로파운드(Eurofound)의 유럽근로조건 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조사하는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지적·추상적 업무, 반복 업무 등을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가 복잡한 업무, 업무를 위해 늘 새로운 것을 학습, 예상치 못한 문제해결 등 다양한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가운데, 1분보다 짧게 반복되는 작업, 반복적 손동작이나 팔동작 등 반복 업무의 특성을 갖는 항목들은 농림어업 숙련자, 장치기계 조립원 등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 기능원은 업무의 복잡성, 예상치 못한 문제해결, 업무를 위해 늘 새로운 것을 학습 같은 지적, 추상적 업무 특성 면에서는 사무직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반복성 지표 또한 점수가 높아 사무직과는 다른 특성을 보였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주가 다양한 항목에서 상용직과 비슷한 수준의 지적, 추상적 업무 특성을 보였으며, 사업을 하는 특성상 상용직과 달리 동료 외 사람 상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업무 특성 면에서 고용주나 상용직과는 많이 다르고 임시직과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반복, 단조로운 업무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 그 정도는 일용직이 가장 높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하는 특성상 문제해결능력만큼은 상용직보다도 높고 고용주보다는 낮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득과의 관계도 분석했는데, 업무 특성 중 업무 중 인터넷, 이메일 활용이 가장 소득과의 정의 관계가 뚜렷했고, 업무가 복잡하다, 예상치 못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같은 지적, 추상적 업무의 소득과의 정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동료 외 사람 상대, 반복 업무 특성을 보여주는 항목 중 반복적 손동작이나 팔동작, 그리고 업무가 단조로운 경우 소득과 부의 관계가 뚜렷했다.

업무 특성을 통제하면 종사상 지위 회귀계수 절대값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용직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소득이 낮는데, 업무 특성을 통제할 때 계수 절대값이 1/3 수준으로 축소되어 상용직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페널티의 상당 부분이 업무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는 반대로 계수가 커졌다. 소득면에서 불리한 업무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고용주 특성의 반영으로 풀이되었다.

자영업자 일자리는 흔히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일자리로 묘사되곤 한다. 이런 것이 현실이면 반복 업무가 축소되는 트렌드상 줄어드는 반복 업무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반복 업무를 하거나, 다른 더 소득 잠재력이 낮은 일자리로 갈 것을 상정해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인지적 일자리의 고용 몫 증가인 트렌드상 임금근로와 자영업 사이에는 고용 몫 변동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될 수 있다. 임금근로에서는 반복 업무가 줄고 인지 업무가 늘고 있으므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반복 업무나 이보다 못한 분야에서 창업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추정결과는 정반대의 부호로 나타났다. 임금근로 고용 몫이 증가하는 곳에서 자영업 고용 몫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자영업 일자리 역시 노동시장 일자리 변동의 장기 트렌드를 임금근로와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이는 일자리 양극화가 나타날 때 양극화의 완충지대가 아닌, 양극화를 함께하는 부문으로 자영업 일자리가 역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변동과 개인에게 자영업 일자리가 갖는 함의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반복 일자리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인지 업무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없다면 자영업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에서 유리하게 나타났다. 자영업 일자리에선 반복 업무이든 육체 업무이든 유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일자리가 갖는 소득 프리미엄 특성의 결과일 것이다. 또한, 비임금근로자는 반복 및 육체 업무 특성을 가진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유사한 특성의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할 경우 소득 개선을 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사한 업무에 남을 거면 비임금 일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다. 임금근로 일자리의 수축되는 업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일자리 대비 상대적인 페널티가 있다는 의미이다. 평균적으로는 비임금근로로의 이동이 낫다는 의미이고, 평균적으로는 비임금에서 임금근로로의 복귀는 소득 잠재력의 상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책적으로 보면 비임금에서 임금근로로의 이동 촉진이 평균의 관점에서 볼 때 꼭 바람직한 것이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결과이다.

## 제 4 장 결 론

지금까지 자영업이 불평등과 양극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기술 변화는 반복업무 줄이는 기술변화 가설(routine-biased technological change)을 통해 임금근로 노동시장에서 반복 업무가 주요 특징인 일자리는 줄이고 지적, 인지적 업무는 증가시키며, 기술로 대체하기 어려운 청소 같은 비반복 육체 업무도 일부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숙련 친화적 기술변화 가설(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에 따르면 고속 숙련 일자리만 증가시킨다고 한다. 이번 연구는 이와 같은 기술변화가 일자리에 영향을 미쳐온 일자리 트렌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영업 일자리가 어떤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불평등과 양극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2장에서는 자영업과 근로자 간 격차 및 불평등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였다. 고용주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모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지니계수도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서 국제금융위기 이래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의 지니계수가 월등히 커서 개인 소득 불평등에서 자영업이 불평등 강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 격차 자체는 2000년대 초반보다는 현재 완화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소득 분위를 나눠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가장 높은 10분위의 절반이 자영업자였으나 지금은 35%로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분위에서 차지하는 몫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을 통해 잠재 소득 능력이 나은 사람들이 좀 더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여부에 따라 자영업 소득 상위 계수 추정치가 크게 축소된다는 점을 밝혔다. 미관측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2000년대 초반에는 자영업자가 근로자에 비해 9% 내외의 월소득 우위에 있었으며, 이와 같은 우위는 추정방식을 달리할 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아닌 고용주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최근인 2014~2019년으로 오면, 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소득 우위는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200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에 고용주 소득 우위가 훨씬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과거에 비해 현재 고용주가 되는 사람이 좀 더 소득이 높을 미관측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선택편의가 더 강해졌으나, 이를 제외한 고용주 일자리의 소득 우위는 축소되었음을 의미한다.

2000년대 초중반 데이터에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용직 근로자보다는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나, 임시·일용직보다는 소득 잠재력이 월등히 높은 사람으로 분석되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상용직 대비 소득 페널티의 대부분이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인 탓으로, 이 부분을 통제하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당 임금으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용직과 비교할 때 월임금으로 볼 때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지만, 임시·일용직 대비 소득 잠재력이 높았던 결과는 사라진다. 임시·일용직 대비 더 길게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성향 때문에 임시·일용직과 비교할 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 잠재력이 높은 것처럼 보였던 셈이다.

2010년대 중후반으로 오면 월임금 기준으로는 상용직 대비 소득 페널티가 존재하는 점에선 과거와 동일한데, 소득 잠재력을 통제해도 여전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소득에 페널티가 존재하게 바뀌었다는 점에선 과거와 다르다. 상용직 대비 페널티가 더 강화된 셈이다. 임시·일용직과도 월소득 기준으로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하면 과거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라졌다는 차이가 있다. 두 집단 간 차이는 임시·일용직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소득 잠재력이

높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 차이를 통제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 프리미엄은 과거와 달리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임시·일용직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일자리 간 격차는 과거에 비해 좁혀졌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위별로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소득이 높은 고분위에서 고용주의 선택편의가 강화된 가운데 개인 미관측 특성을 통제 한 상태에서의 격차는 과거에 비해 다소 좁혀졌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최근으로 오면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전 기준으로 모든 분위에서 프리미엄이 아닌 페널티가 나타난 가운데, 특히 저분위에서 페널티가 크게 분석되었다. 여전히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상위 분위에서 개인 미관측 특성 통제 전 일자리 페널티가 관측되는 차이가 있다. 다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갖는 일자리 프리미엄 자체는 존재하기 때문에 소득 잠재력이 낮은 사람들이 선택함에도 4분위 이상에서 근로자와 격차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분위별 회귀계수로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2010년대 중 후반에도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도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다소 강화시켰다. 고용주가 주로 상위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불평등을 증가시키다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특히 시간당 소득 기준으로 볼 경우 하위에서 끌어내리기 때문에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큰 차이라 할 수 있겠다.

제3장에서는 자영업자의 업무 특성을 근로자와 비교해 살펴보고, 업무 특성별 일자리 변동을 분석하였다. 유로파운드(Eurofound)의 유럽근로조건조사를 벤치마킹하여 조사하는 근로환경조사 분석을 통해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가 복잡한 업무, 업무를 위해 늘 새로운 것을 학습, 예상치 못한 문제해결 등 다양한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가운데, 1분보다 짧게 반복되는 작업, 반복적 손동작이나 팔동작 등 반복 업무의 특성을 갖는 항목들은 농림어업 숙련자, 장치기계 조립원 등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고용주가 다양한 항목에서 상용직과 비슷한 수준의 지적, 추상적 업무 특성을 보였으며, 사업을 하는 특성상 상용직과 달리 동료 외 사람 상대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업무 특성 면에서 고용주나 상용직과는 많이 다르고 임시직과는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반복, 단조로운 업무 특성을 보이는 가운데, 그 정도는 일용직이 가장 높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하는 특성상 문제해결능력만큼은 상용직보다도 높고 고용주보다는 낮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소득방정식에서 업무 특성을 통제하면 종사상 지위 회귀계수 절대값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상용직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소득이 낮는데, 업무 특성을 통제할 때 계수 절대값이 1/3 수준으로 축소되어 상용직 대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페널티의 상당 부분이 업무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는 반대로 계수가 커졌다. 소득 면에서 불리한 업무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고용주 특성의 반영으로 풀이되었다.

자영업자 일자리는 흔히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일자리로 묘사되곤 한다. 이런 것이 현실이면 반복 업무가 축소되는 트렌드상 줄어드는 반복 업무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반복 업무를 하거나, 다른 더 소득 잠재력이 낮은 일자리로 갈 것을 상정해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인지적 일자리의 고용 몫 증가인 트렌드상 임금근로와 자영업 사이에는 고용 몫 변동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견될 수 있다. 임금근로에서는 반복 업무가 줄고 인지 업무가 늘고 있으므로,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반복 업무나 이보다 못한 분야에서 창업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추정결과는 정의 부호로 나타났다. 임금근로 고용 몫이 증가하는 곳에서 자영업 고용 몫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자영업 일자리 역시 노동시장 일자리 변동의 장기 트렌드를 임금근로와 유사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이는 일자리 양극화가 나타날 때 양극화의 완충지대가 아닌, 양극화를 함께하거나 촉진하는 부문으로 자영업 일자리가 역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다.

이러한 일자리 변동에서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자영업 일자리가 갖는 함의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반복 일자리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인지 업무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할 수 없다면 자영업 일자리로 이

동하는 것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에서 유리하게 나타났다. 자영업 일자리에선 반복 업무이든 육체 업무이든 유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임금근로자는 반복 및 육체 업무 특성을 가진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을 경우 유사한 특성의 임금근로 일자리로 이동할 경우 소득 개선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사한 업무에 남을 거면 비임금 일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다. 임금근로 일자리의 수축되는 업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른 일자리 대비 상대적인 페널티가 있다는 의미일 수 있겠다. 정책적으로 보면 비임금에서 임금근로로의 이동 촉진이 평균의 관점에서 볼 때 꼭 바람직한 것이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결과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로 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평균적으로 볼 때 상용직보다 못하고 임시·일용직보다는 다소 나은 상황에 있는 취업자 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상용직과의 격차는 다소 커지고, 임시·일용직과의 격차는 다소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지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제도는 지난 몇 년간 조금씩 확대된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 확대된 전국민고용보험으로 일부 자영업 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보호를 받고, 몇 년 전부터 근로장려금에 포괄되며, 최근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진전되었다. 이들의 경제적 지위로 보면 일상적인 경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제도의 가일층 확대, 실업급여에 그치는 보호 항목 다양화 같은 추가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류재우(2004), 「자영업 부문의 소득기회와 선택성」, 『경제학연구』 52 (2), pp.5~32.
- 성재민·강동우·오상봉(2018), 『자영업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자영업의 동태적 변화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최강식·정진욱·정진화(2005),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28 (1), pp.135~156.
- Borah, Bijan J. and Anirban, Basu(2013), “Highlighting Differences between Conditional and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 Approaches through an Application to Assess Medication Adherence,” *Health Economics* 22 (9), pp.1052~1570.
- Firpo, Sergio, Nicole M. Fortin, and Thomas Lemieux(2009), “Unconditional Quantile Regressions,” *Econometrica* 77 (3), pp. 953~973.
- Levine, Ross and Yona Rubinstein(2017), “Smart and Illicit: Who Becomes an Entrepreneur and Do They Earn More?”,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2 (2), pp.963~1018.
- Schneck, Stefan(2020), “Self-employment as a source of income inequality,” *Eurasian Business Review* 10 (1), Springer, Eurasia Business and Economics Society, pp.45~64.





◆ 執筆者

-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고용형태, 일자리 변동, 기술변화가 불평등에 미친 영향

- 발행연월일 | 2021년 12월 24일 인쇄  
2021년 12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 황 덕 순
- 발 행 처 |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판·인쇄 | 도서출판 창보 (02) 2272-6997
- 등 록 일 자 | 1988년 9월 13일
- 등 록 번 호 | 제2015-000013호

© 한국노동연구원 2021      정가 5,000원

ISBN 979-11-260-0543-7

**KLI**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83    <http://www.kli.re.kr>



ISBN 979-11-260-0543-7